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서정 담시집』에 나타난  
위즈워쓰의 자연관

指導教授 許允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文 梅 順

2007年 2月

『서정 담시집』에 나타난  
위즈워쓰의 자연관

指導教授 許允德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文梅順

文梅順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7年 2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서정 담시집』에 나타난 워즈워스의 자연관

文 梅 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許 允 德

18세기의 합리주의와 신고전주의의 규범과 전통을 부정하고 이성과 질서의 존중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낭만주의는 당시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회의 큰 전환점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낭만주의의 본격적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798년 『서정 담시집』의 출판은 영국 문학에서 크나큰 이슈였고 특히 『서정 담시집』의 서문에 실린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라는 것, “시인은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 “시어는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의 견해는 당시 문학 사조에서 굉장히 혁명적 발언이었다.

본 연구는 『서정 담시집』에 담긴 낭만주의 문학사상을 바탕으로 워즈워스(W. Wordsworth)의 주요한 여러 가지 개념론에서 특히 자연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늘 자연과 벗하고 교감하며 자연을 친구이자 보호자 나아가 스승으로 삼으며 성장했다. 즉, 그는 자연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범신론자였다. 그는 체험을 통해 자연관을 형성해 나갔고 그의 시정신도 그와 더불어 성장해 갔다. 그래서 그는 자연에서 깨달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서정 담시집』에 나온 그의 초기시에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틴턴 사원」에 함축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

※ 본 논문은 2007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의 필요성은 워즈워스의 시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이유와 그가 자연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도덕적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틴턴 사원」을 중심으로 한 그의 시를 통해 그가 체험했던 자연이 그 자연을 다시 찾았을 때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회상되고 재창조되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슬퍼할 때 축복받은 기분을 주고 위안을 주어 마음을 고요하고 평정된 상태로 바꾸어 준다는 즉, 자연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고 마음을 치료해 준다는 보편적 진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는 도덕적 진리를 일깨워 준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위즈워쓰의 자연시론        | 7  |
| III. 위즈워쓰의 시에 나타난 자연관 | 16 |
| IV. 결론                | 63 |
| Bibliography          | 66 |
| Abstract              | 70 |

# I. 서론

영국 낭만주의가 개화를 맞아, 이성과 질서와 형식을 존중하는 과거의 신고전주의에 대항하여, 인간 생활의 규율, 사회적 도덕적 속박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문학상의 낭만주의라는 풍요한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시작했던 낭만주의는 상상력과 인간의 자유 그리고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문학사조로 발달하게 되고 결국, 전지전능의 신이나 하늘보다는 인간 자신이나 자연에 더욱 큰 비중이 실리게 되면서 절대적 진리마저도 인간의 내면이나 자연속의 상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기성제도, 인습, 형식, 부당한 권력, 허위로부터 도피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낭만주의의 전성기는 보통 1798~1832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때 등장한 낭만 시인들의 공통점은, 자연을 인간사와 관련을 맺은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겼다는 점이다. 즉, 루소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시인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세력에 기가 꺾인 자연의 참모습을 보고, 이 안에서 영적인 존재인 신(God)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어떤 다른 낭만주의 시인보다 루소의 감화를 많이 받은 워즈워스 (W. Wordsworth) (1770~1850)는 루소의 자연관에 매력을 느껴, 『서정 답시집』 (*Lyrical Ballads*)을 비롯한 그의 대부분의 시에서 인공적인 모든 것을 배격하고 자연의 소박하고 시골적인 삶을 주로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워즈워스는 선하게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연 앞에서 평등하며 형제라는 사고를 키워나가, 프랑스 혁명 정신에 기반을 둔 그의 휴머니즘 정신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18세기 신고전주의는 희랍과 로마의 문학예술이 지니고 있던 정신과

양식을 모방하려는 사조로 이 시대의 문인들은 고전작가들의 전통과 문학 정신을 이어 받으려고 한다. 또한 고전주의 시인들은 형식과 규칙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고대의 문학작품을 모방한다. 시인들은 시를 읽고 창작하는 기쁨보다는 철학적인 교훈과 진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인간의 감성을 무시하고 이성과 경험적 실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 인습과 전통이 중시됨으로써 생활이나 문학창작에 있어 생명력 없는 형식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과 지성에 뿌리를 둔 문학작품은 인간의 강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또한 18세기는 규칙, 질서, 이성에 의한 보편성과 관습을 기준으로 한 합리주의 시대였다. 고전주의가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합리성이 이성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보편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성만으로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동시에 과학발전의 원동력이면서 인간과 자연을 비인간화 물질화 시키는 원인도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을 전후하여 대두된 휴머니즘은 이와 때를 같이한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은 그의 영향을 받은 워즈워스의 『서정 담시집』의 출판과 함께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과 상상력을 중시한 낭만주의를 태동시키게 된다.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자연은 창작의 소재이자 사색의 동반자로서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자연은 워즈워스를 대시인으로 성장시키는 원천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신고전주의 문학에서도 소위 자연이 중요한 문학용어의 하나로 간주되었지만, 이 경우 자연은 이성이나 질서등과 같이 인간 경험에 있어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요소의 총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지, 낭만시에 등장하는 바와 같은 객체로서의 ‘외적 자연’은 아니다.

그의 시세계는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태어난 영국 호반지역의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은 워즈워스를 위대한 시인으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다시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잃어 고아가 된 워즈워스에게 자연은 그의 유일한 벗이 된다. 하늘과 구름, 산골짜기, 잔잔한 호수, 심지어 숲속 새들의 지저귀임까지도 그의 어린 마음을 설레게 하고 더욱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 워즈워스에게 자연은 사소하고 평범한 한 송이의 꽃, 종달새, 뻐꾸기들도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그는 자연으로부터 단순한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물론 주위환경만이 그를 위대한 시인으로 만든 건 아니다. 그에게는 자연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통찰력과 섬세한 감수성과 친화력이 흐르고 있다. 워즈워스는 자연에서 느끼는 기분으로 인간의 고통과 애환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감정을 도덕적 신념으로 확대시켜 다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진심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결코 자연을 단순한 심미적인 눈으로 상세히 묘사하는 시인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며, 또한 자연에서 느낀 단순한 기쁨을 그의 심오한 사상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할 때까지 자연과의 교감을 이루어, 하나의 돌, 한그루의 나무, 시든 잎, 넓은 태양, 똑같은 수많은 별로 반짝이는 푸른 하늘 등, 우주 전체를 통하여 살아 있는 힘(존재감)을 느꼈으며, 그것이 또한 인간의 삶을 살찌우는 기쁨이라는 것도 깨닫는다.

워즈워스에게 자연은 결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연이 아니다. 그에게 자연은 언제나 무한한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유기적 존재이며, 또한 그 살아 있는 무한한 힘으로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는 자애로운 자연이다. 워즈워스는 이와 같이 자연에는 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애로운 힘이 있음을 믿고 있고, 아울러 세상사에 쫓기기 쉬운 인간이 허심탄회하게 자연을

맞이함으로써, 인간이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살아 있는 힘의 일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는 자기만의 예리한 눈을 통하여 자연이 단순한 객관의 대상이 아니라 무언의 교훈을 전해주는 다시 말해서 사랑이 고갈된 인간 생명체에게 정신적 치유와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신비한 힘으로 인간에게 재생의 기쁨과 동질성 내지 일체감을 주는 대상이다. 이처럼 워즈워쓰의 시는 모두 자연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다비셔(H. Darbishire)는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시점에서 워즈워쓰의 시가 생겨났다.”<sup>1)</sup>고 말하는데 이는 자연을 떠나서 이기적이고 나약해진 인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교감을 통한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의 관계를 추구 한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다비셔는 워즈워쓰가 자연 속에서 성장하면서 받은 자연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워즈워쓰의 시적 삶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살아있는 자연과 친밀했던 한 소년으로, 숲과 들판을 거닐던 방랑자로 성장했다. 그는 화려한 시구에 환희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인의 작품에 존재하는 위대한 자연으로부터의 심오한 기쁨의 영원한 감촉을 받았다.<sup>2)</sup>

호크스헤드 문법학교를 다니던 소년시절에 숲속을 드나들면서 그의 공허한 마음을 환희와 기쁨으로 채워주었던 것은 자연과의 대화이다. 어린 소년은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감정은 단순한 쾌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덕적으로 승화된 심미적 기쁨을 말한다. 즉, 인생의 괴

---

1) Helen Darbishire, *The Poet Wordsworth* (London: Longman Green & Co.Lt., 1958), p. 58.

2) *Ibid.*, p. 11.

로움을 달래주는 힘이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영원한 기쁨이다.

워즈워스는 전통적인 시작에서 탈피하여 그 주제를 전원생활의 소박한 이야기와 소박한 시골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의 시는 다른 시인들의 시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난해함이 덜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연을 보는 순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하여 자연을 재창조하는 시인이다. 그는 좋은 시란 자발적인 감정을 노래하되, 고요 속에서 다시 회상되어진 감정을 노래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기억과 회상을 중시하는 상상력의 시인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시인의 명상의 습관이 감정을 고무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자극할 만한 사물을 묘사하면 거기에 하나의 목적이 수반된다고 시인은 생각한다. 그는 타율적인 기준을 떠나 시인 자신의 정서와 감정 속에서 시의 근원을 찾게 된다. 합리적인 상식에 치중하고 고전적인 형식에 의존함으로써 시가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시인의 마음속에서 힘차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스스로 넘쳐흐름으로써 시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시라야 일반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워즈워스는 자연과 회상에서 그 실재를 추구하려고 시도한다. 이처럼 낭만주의 시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강조하고 상상력을 중시하였는데 특히 워즈워스는 자연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는 워즈워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유년시절 및 소년시절을 통해 그가 자연시를 쓰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그의 종교관의 변화와 더불어 자연과의 영적교류를 통한 그의 작품에서의 도덕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제 2장에서는 워즈워스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자연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를 워즈워스의 자연시론을 통해,

제 3장에서는 세편의 시 「내 가슴은 뛰어나」(“My Heart Leaps Up”),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I wandered Lonely as a Cloud”), 「틴턴 사원」<sup>3)</sup>에 나타난 자연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의 정신적 사상의 접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가 이르고자 하였던 인간과 자연과의 완전한 교감을 어떻게 성취하여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

3) 원제는 “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on Revisiting the Banks of the Wye during a Tour”로 편의상 앞으로는 「틴턴 사원」으로 칭하겠다.

## Ⅱ. 워즈워쓰의 자연시론

워즈워쓰는 인간의 감정이 가장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그리하여 워즈워쓰는 『서정 답시집』 서문에서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라고 정의한다.

시란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다. 이것은 고요 속에 회상된 정서로부터 시작된다. 정서란 일종의 반응에 의해 고요함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때 숙고되며, 그리고 명상의 대상물 앞에서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정서는 점차적으로 생산되고 실제로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시작이 이루어지고, 이것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시작은 계속된다.<sup>4)</sup>

이는 과거를 조용히 회상하는데서 오는 강력한 감정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넘쳐흐름이 시적 정서의 원천이라는, 즉 시 창작에 있어 회상을 통하여 반복 음미하고 생각하는데서 심오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시작과정에 대한 시인의 견해이다. 강력한 감정이 고요 속에서 회상된 정서로 변환될 때 시의 탄생이 가능해진다. 어느 장소나 시점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은 훗날의 회고의 감정과 다르다. 그에게 회상된 정서는 시를 잉태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듀란트(G. Durrant)에 의하면 회상의 과정이나 심리상태는 상상력으로 발전하고 상상력은 스펙트럼처럼 찬란하고 빛을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한다.<sup>5)</sup> 워즈워쓰는 시를 잉태하기 위하여 명

4) M. H. Abrams,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 2 (New York: W. W. Norton & Co, 1979), p. 173.

5) Geoffrey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A Study of Wordsworth's Poetic Universe*. (Cambridge: Cambridge UP, 1969), p. 79.

상을 계속하는 동안에 감정이 어떤 목적과 결부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물의 묘사에는 어떤 목적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훌륭한 시는 힘찬 감정의 자연스러운 넘쳐흐름”이긴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시인)의 오래고 깊은 사색에서 나온다.”는 주장에 의해 보다 구체화 된다.

워즈워스는 시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즉 보다 생동적인 감성과 열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시인이란 누구인가? 누구에게 시인은 말하는가? 그리고 어떤 언어가 그로부터 나오길 기대되어지는가? 시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시인은 감성과 예민성, 지식과 이해력에 있어서 보통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며, 자신의 정열과 의지력에 즐거움을 느끼고, 정신적 삶 속에서 보다 많은 기쁨을 느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신의 의지 작용과 정열을 숙고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이다.<sup>6)</sup>

워즈워스는 시인은 감성과 예민성, 지식과 이해력에 있어서 보통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한다. 자신의 의지력에 즐거움을 느끼고, 정신적 삶 속에서 보다 많은 기쁨을 느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신의 의지 작용과 정열을 숙고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힘차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스스로 넘쳐흐름으로써 시는 생겨나는 것이고 이러한 시만이 일반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속성들 중에서도, 시인을 보통사람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특성은 평범한 체험들을 폭넓은 사고나 상상으로 조직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평범한 체험 요소들을 종합하고 조직함으로써 보편적 소재에서 예술작품을 창조해 내고, 심지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질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6) Abram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p. 174.

뛰어난 점이 특성이다.

위즈워쓰는 자신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공감의 감정으로 인생을 음미한다. 고통에 대한 공감의 감정은 쾌락과의 미묘한 교감에 의해서 야기되므로 시인이 사랑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환경에 대해 공감하게 되는 것도 쾌락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그는 시에 대한 공감과 쾌락의 감정은 종교적 희열이나 신념에 못지않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체험을 하게 마련이다. 고통과 행복의 체험들이 먼 훗날 회상이란 과정을 통해 재현될 때에, 그 체험의 성질과 회고의 정서적 밀도에 따라 다양한 미적 체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무색 무미한 햇빛이 스펙트럼에 의해 그 빛이 분광되어 오색찬란한 무지개 빛깔로 나타나듯이, 경험의 세계로의 인간의 회상능력이나 감각의 밀도, 시인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그 미적 양태가 달라진다. 그가 말하는 회상의 과정에는 상상력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신고전주의 시인들의 시가 고도로 질서 정연하고 형식적이고 지적인 언어표현이었다면 낭만시인들의 시는 감성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감각적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들에서 내가 피했던 주요한 목적은 일상으로부터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실제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시종일관, 그것들을 관계 지어 묘사하며, 동시에 어떤 상상의 색채를 그것들에 더하여, 그것들로 인해 보통의 일들이 마음속에 비범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또한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특히, 우리가 고양된 감정상태(즉 환희, 고통, 비애) 등에서 어떤 생각들을 연상하는 방식에 관한한,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법들을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들이 그것들을 추적함으로써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다.<sup>7)</sup>

워즈워스는 신고전주의 시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시어에 있어서 인위적인 어휘나 세련된 용어보다는 시골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발생적인 말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을 상상력으로 채색시켜 특이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생활 방식 속에 인간 본성의 본질적 숭고함이 가장 잘 깃들여 있고, 이보다 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검소한 서민들의 생활 속에 본질적인 인간감정이 자유로이 발휘되고 성숙될 수 있는 토양이 존재하므로 성숙된 인간 감정의 표현 매체로서의 시어는 당연히 시골 사람이나 서민들의 생활언어가 시어로서 선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시작태도에 대해 에이브람스(M. H. Abrams)는 “워즈워스가 가장 독창적인 시인으로서 새로운 사물을 보거나 사물을 새로이 보았다.”고 말한다.<sup>8)</sup>

워즈워스의 상상력은 사물에 대한 감각과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객체를 주체화하고 시인의 내면정신과 외부세계인 자연을 결합하는 정신 능력이다.

상상력은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부 대상물에 대한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모방인 심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특정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 그러한 외부 대상물에 미치는 마음의 작용과 창작 혹은 시작의 과정을 나타내는 좀더 중요한 의미의 단어이다.<sup>9)</sup>

상상력은 외부 대상에 미치는 정신작용이며 시 창작 과정인 것이다. 이처

7) *Ibid.*, p. 175.

8) Harold Bloom, "The Myth of Memory and Natural Man," in *Wordsworth: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M. H. Abrams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p. 13.

9) Abram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p. 176.

럼 워즈워쓰는 자연 사물이 시인에 의해 창조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 사물로부터 현존하고 있는 특징들을 추출해 내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갖다 주기도 하며 그 사물을 시인의 정신에 용해시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워즈워쓰의 상상력은 무엇보다도 정신과 자연 사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며, 감각이 용해된 영감에 채워진 통찰력이며 시 창작의 정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갑은 워즈워쓰의 시를 읽을 때 지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시적인 상상력의 정신활동으로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자연이나 시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 된다. 자연이 완성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인이 상상력을 통하여 능동적인 참여성 속에서 자연을 감상하고 이해하듯이 독자도 오로지 상상적인 참여를 통하여만 자연과 같은 위상에 속한 시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시인이 자연을 보는 방법에 따라 독자도 시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 시 사이에는 유기적인 상호관계가 불가능해지면서 시는 단지 인위적인 가공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sup>10)</sup>

워즈워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여러 상황을 시의 소재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시를 쓸 때 시의 소재로 채택하기 위해 소박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 비행을 저지른 사람들, 농사꾼, 방울장수, 마을 이발사, 죄수들, 떠돌이 여자들, 집시들, 친척 소년과 미친 어머니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진다.

소박하고 전원적인 생활이 일반적으로 선택되어 졌는데 이는 그

10) 김종갑, 「Wordsworth의 시에 있어서 이상적인 독자 -자연과 텍스트의 위상과 관련해서-」, 『영어영문학』 제 39권 1호, 서울, 1993, p. 22, 재인용.

러한 조건에서 가슴의 본질적인 열정들이 성숙을 획득할 수 있는 더 나은 토양을 찾고, 구속을 덜 받으며, 더욱 알기 쉽고 명백한 언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들은 더욱 단순화되어 공존하고 더욱 힘차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골에서의 삶의 방식은 그러한 기본적인 감정으로부터 발생하고 더욱 쉽게 이해되고 더욱 영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조건에서 인간의 열정은 아름답고 영속적인 자연의 형상과 결합되기 때문이다.<sup>11)</sup>

다시 말해서 그가 이처럼 소박하고 전원적인 생활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시의 소재로 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 서민의 생활은 자연과 인간이 쉽게 교감되어 인간의 감정이 보다 더 풍부해질 수 있고, 둘째, 자연에서 이탈된 도시생활은 이기심과 허영과 욕망에 가득 차있어 진정한 기쁨의 생활과는 단절되며, 반면 시골생활에서는 인간의 기본감정이 구속을 덜 받기 때문에 감정이 보다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시골사람들은 언제나 자연과 호흡하며 살고 있으므로 순수한 정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 쉽게 이해되며 보다 영속성을 지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통합성 때문이다.

이처럼 “소박하고 전원적인 생활(humble and rustic life)”이야말로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 보다 소박한 상태로 공존하고, 보다 정확하게 숙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차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토양이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열정은 아름답고 영원한 자연 형상과 결합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인간을 삶의 고난에서 구원을 찾게 해준다. 불우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을 충분한 사랑과 꾸밈없는 소박한 애정으로 노래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인간의 의의와 존재가치를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색하며 탐구한다.

11) Abram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p. 175.

워즈워스는 인간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나 행복을 자연에서 발견한다. 자연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 그가 시인을 두고 자연을 섬기는 사제 혹은 자연의 찬미자라고 하는 것도 자연의 도덕적 기능을 파악하는 자가 바로 시인이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의 자연과의 친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진다. 워즈워스는 8세 때 어머니를 잃고 13세 때에는 아버지마저 여의고 그의 세 형제들과 이모인 앤 타이슨(Ann Tyson)의 시골집에서 지내게 된다. 타이슨은 그들에게 풍족한 애정을 베풀고 마음대로 전원 속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는 그러면서 우울과 고독에 젖어 산과 들을 산책하고 자연 속에서 고독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감정을 체험하였으며 이러한 어린시절의 정신적 경험은 그의 시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고아가 된 그에게 자연만이 유일한 벗이 된다. 하늘과 구름, 산골짜기, 잔잔한 호수, 심지어는 숲 속에서의 새들의 지저귐마저도 천진난만한 어린 마음을 설레게 하였으며, 많은 사색의 계기를 마련해 주어 그의 시문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자연은 그로 하여금 불우한 생활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느끼게 했고, 일생동안 그는 대자연의 은총을 체험함으로써 그의 독자적 시 세계를 형성해 간다. 이에 관해 아놀드(M. Arnold)는 그의 저서 『비평에 대한 에세이』(*Essays in Criticism*)의 워즈워스론에서 워즈워스의 위대성은 그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시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12)</sup> 다시 말해 워즈워스는 도시와 사회에서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자연 속에서의 조용하고도 한가로운 은둔을 좋아한 시인이다.

낭만주의의 대표적 자연시인인 워즈워스는 그의 시론을 바탕으로 많은 시를 썼으며 대체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쁨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호수지방에서 태어난 그는 자유로운 유년시절을 보내면

12) Matthew Arnold, *Essays in Criticism* (London: Macmillan and Co. Ltd., 1958), p. 91.

서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그의 자연은 움직이지 못하는 바위나 나무처럼 단순히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채색된 자연으로 인간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의인화된 자연의 모습이다.

불운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워즈워스는 고독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자연을 배회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상의 온갖 형상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심안(inward eye)을 갖게 된다. 어린시절 그가 예리한 시각으로 자연을 관찰하여 상상력을 통해 그 내면에서 비치는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워즈워스의 자연관에 대해 에이브람스(M. H. Abram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워즈워스의 가장 중요한 시적 가치의 기준은 자연이다. 자연은 3가지의 기본적인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연은 인간 본성의 평범한 이름이다. 둘째, 자연은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단순한 특히 시골환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셋째, 자연은 사고와 감정의 기본적인 단순함과 자연스럽고도 비인위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감정을 주로 구성한다.<sup>13)</sup>

이는 자연이란 인간본연의 감성을 드러내주는 매개체적 존재이며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인간들 사이에서 특히 시골과 같은 환경에서 잘 나타나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더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임을 말한다. 또한 그가 주장한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란 시론처럼 이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연이고 따라서 시인은 이러한 자연 속에서 그의 시적 소재를 찾는다.

시인은 외계의 자연에서 인간 내면의 정신에 어떤 엄숙하고 신성한 존

---

13) M. H. Abrams, *The Mirror and the Lamp*. (London: Oxford UP, 1953). p. 105.

재가 있어 그것이 대자연 가운데 흐르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게 함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한다는 범신론적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위즈워쓰의 범신론적 자연예찬은 유년시절부터 본능에 의하여 얻었던 신비적 체험이 낳은 결과이다. 그는 언제나 감각의 세계를 확고한 근원으로 삼고 자연에도 인간 내부의 정신에도 신성한 영적 존재가 있어 그것이 모든 대상에 흐르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 Ⅲ.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자연관

워즈워스가 자연에서 흥미를 느끼고 바랬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내 가슴은 뛰누나」이다.<sup>14)</sup>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누나.  
나의 삶이 시작한 때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할지니,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게하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으로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워즈워스는 이 시에서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고 뛰는 가슴을 그대로 노래하였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건함을 느끼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한 편의 시를 지은 것이다. 하늘의 찬란하고 화려한

14) Abram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p. 176.  
앞으로 이 논문에 인용되는 시는 위 책에서 인용. 「틴턴 사원」은 행수만 표기함.

무지개를 바라보았을 때, 자연의 경건함을 체험한 워즈워스의 가슴은 무의식적으로 흥분된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무지개를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지만, 시인에 있어서는 무지개의 미에 대한 경이가 대자연에 대한 경건심으로 발전하고 이 경건심이 귀중하게 느껴진다. 하늘의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경건한 생활을 보여주는 고매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감동할 줄 모르는 인생은 무의미하며 차라리 죽는게 낫다. 다시 말해 자연에 대한 경탄과 신비스런 느낌이 어린 시절의 사실로 묘사되면서, 미래의 삶이 어린시절의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이어갈 수 없다면, 그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끝 구절의 “자연의 경건함 (natural piety)”에 대해 윌리엄스는 “일상적인 일들 중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무지개와 같은 자연 현상은 어른이 된 그를 어린 시절로 묶어 놓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한다.<sup>15)</sup> 리틀데일(K. V. Littledale)은 워즈워스의 모든 시의 특성 중 가장 뛰어난 점은 “자연의 경건함”에 있다고 지적한다.<sup>16)</sup>

어린이의 영혼은 천진난만하고 개방적이며 감수성이 강하다. 그래서 모든 자극을 받아들이고, 많은 것으로부터 지식을 흡수하는데, 특별히 대자연에 대한 감응력은 강렬하다. 어린 시절 대자연에 대한 정서적 감응력은 그의 정신과 마음속에 간직되어, 어른이 된 후에는 회상력을 통하여 재생된다. 또한 많은 실제적 경험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고 쌓여져, 어른 시절에도 회상되어 되살아난다. 이런 체험은 시인의 강력한 감정이 아니고는 생길 수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시인의 가슴은 뻗는 것이다. 이러

15) Charles Williams, "Wordsworth," in *English Romantic Poets*. ed. M. H. Abram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3), p. 108.

16) K. Velin Littledale, *Wordsworth: A Philosophical Approach* (Oxford: Oxford Univ. Press, 1967), p. 158.

한 의미에서 코놀리(F. X. Connolly)의 말처럼 “자연 발생적인 시 (Spontaneous Poem)”<sup>17)</sup>가 되고, 또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라는 그의 시론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무지개를 보았을 때 느꼈던 대자연에 대한 경건심은 시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어 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욱 종교적 감정으로 승화되어, 대자연이 주는 계시까지 알게 된다. 무한히 아름다운 대자연과의 친밀함 속에서 창조주의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범신론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에서 상실된 어린 시절에 대한 경험은 어른이 된 현재의 삶의 모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 “아이”는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워즈워스는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이며, 모든 합리적 인식과 지식에 선행하는 자연의 진리를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는 워즈워스가 누이동생 도로시(Dorothy)와 얼스워터(Ullswater)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수선화가 바람에 춤추는 광경을 보고난 2년 후 회상하며 쓴 시로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 “고요속에 회상된 정서”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1805년 4월 15일 도로시는 당시의 산책 중에서 본 수선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수선화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이끼 낀 돌들 사이에서 자랐다. 몇몇은 약해서 마치 베게를 벤 듯 돌들 위에 머리를 두고 있었고, 나머지는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웃는 듯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수선화들은 기쁨에 넘쳐 반짝이는 듯 보였다.<sup>18)</sup>

17) F. X. Connolly, *Poetry: Its Power and Wisdom* (New York: Scribner, 1960), p. 190.

18) Frederick A. Pottle, "The Eye and the Objects," in *The Poetry of Wordsworth: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ed. Harold Bloom (New York: W. W. Norton & Co,

시인과 누이동생이 산책 중에 보고 느꼈던 것은 경험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회상을 통한 상상 속에서 다시 재생되어 한 편의 시로 승화된다. 즉, 시인은 시적 경험이 있는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감정을 연결시켜 한 편의 시를 창작한 것이다. 회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억이라는 저장소에서 회상의 형식을 통해 과거의 정서적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시의 구성을 보면 제1연에서 제3연까지는 호숫가에 피어있는 수선화를 볼 당시의 직접적인 경험을 다루었고, 제4연에서는 명상 속에서 회상되는 강렬한 기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자연이라는 외계에서 얻은 경험이 어떻게 시인의 상상력에 의하여 변모되는가를 보여주고, 그 경험이 어떻게 창조적 지각에 의하여 회상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하늘 높이 골짜기와 언덕 위를 높이 떠도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이다  
문득 나는 보았네  
수없이 많은 금빛 수선화가  
호숫가 나무 밑에서  
미풍에 한들한들 춤추는 것을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That floats on high o'er vales and hills,  
When all at on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시인은 골짜기와 언덕 위를 높이 떠도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이다 문득 보게 된 황금빛 수선화가 호수 나무 아래서 미풍에 흥겨워 춤추는 모습을

---

1970), p. 276.

보게 된다. 그때 시인은 그들로부터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강렬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의 외로운 삶은 위로와 기쁨으로 생동감을 되찾게 된다.

제 1연에서는 수선화, 나무, 호수 그리고 바람이 조화를 이룬 자연의 질서와 그 질서 속에 안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인간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나는 하늘 높이 골짜기와 언덕 위를 높이 떠도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라는 표현은 당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던 워즈워스의 심리적 상태를 잘 나타낸다. 이는 모든 인간들의 외로운 삶 그 자체를 그대로 표현한 말일 수도 있다.<sup>19)</sup> 이처럼 고독을 느끼는 인간의 삶에 반하여 자연질서로서 존재를 영위하고 있는 수선화는 기쁨의 샘으로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인간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자연은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며,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자연의 질서로부터 소외되어 특정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0)</sup> 제 4행의 “금빛의(golden)”라는 형용사는 자의식에 의해 의계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수선화에 적합한 수식어이며, 타락이전의 인간이 살던 에덴동산이나 황금시대(golden age)에 대한 연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불규칙하게 움직임(fluttering)”은 미풍에 깃발처럼 흔들리는 개개의 수선화가 그 생동감을 자랑함을 뜻한다. 동시에 개체는 보다 큰 질서 즉 “춤추다(dance)”의 일부임을 말해 준다.

이 시에서 묘사된 상황이나 정경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현상물들이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에서는 크게 변형되고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불규칙하게 움직임(fluttering)”, “춤을 춤(dancing)”과 같은 표현들은 시인 자신의 마음의 양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듀란트는 워즈워스가 이시를 쓰게 된 주요한 동기의 역할을 하

19)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p. 129.

20) Northrop Frye, *A Study of English Romanticism* (New York: Random House, 1968), p. 18.

고 있는 것은 미풍이라고 주장한다.<sup>21)</sup> 미풍은 이 시에서 호수에 물결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꽃이 율동적으로 춤추게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람은 시인의 창조적 활동을 자극하는 평범한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호숫가에 부는 미풍은 잔잔한 물결과 수선화를 춤추게 함으로써 시인의 마음속에 싹트는 시적 환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은하수에서 빛나며  
반짝이는 별들처럼 연달아  
수선화들은 호반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없이 줄지어 뻗어 있었네,  
나는 한눈에 보았네, 무수한 수선화들이  
머리를 까딱이며 흥겨이 춤추는 것을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bay: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둘째 연에서 시인은 수선화의 모습을 은하수에 반짝이는 별들로 비유하는데 여기서도 인생과 대자연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은하수에서 기쁨으로 반짝이는 별들은 그 영롱한 모습으로 고독과 슬픔을 지닌 고립된 인간의 삶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은하수 속에서 찬란히 반짝이는 별들처럼, 아름다운 황금 수선화들은 흥겹게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아름다운 황금 수선화의 빛깔과 율동미에 대한 묘사는 그만큼 시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기쁨을 안겨준, 강렬한 환희의 강도를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별 하나하나의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 서로서로 마음과 기쁨을 같이 하듯 웅

21)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p. 23.

기종기 붙어서 반짝이는 은하수 별들은, 기쁨을 쏟아내는 듯한 환희의 상징이다. 시인은 황금 수선화들이 한때를 이루어 아름답게 피어나 있는 것을 보고는, 기쁨을 쏟아내는 은하수 별들과 연결지어 비유한 것은 바로 그가 대자연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쁜 심경을 나타낸 것이다. 시인은 어린 시절 밤하늘 찬란히 빛나는 은하수를 보고, 무한한 기쁨과 환희 속에서 벽찬 가슴을 누를 길이 없는 것이다.

첫째 연과 둘째 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과 동떨어진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우울하지만 수선화는 조화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넘쳐흐르고 있다. 조화와 질서를 회복해 주며 기쁨을 주는 자연과 결별된 인간의 삶은 부조화와 고독과 우울의 삶을 나타낸다. 시인은 자연의 부조화된 삶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수선화 옆 호숫물도 춤췄으나  
 수선화는 환희에 있어 반짝이는 물결을 이겼었다.  
 이렇게 즐거운 무리 속에서  
 시인이 어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는 보고— 또 보았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얼마나 값진 것을 가져왔는지 미처 생각 못하고서.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s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company;  
 I gazed — and gaze — but little thought  
 What wealth the show to me had brought:

세 번째 연에서 시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질서하고 무의미했던 이 세상의 질서를 찾고 마음의 활기를 되찾으면서 즐거워한다. 그는 홀로 남아 있지만 호수에 있는 잔물결, 춤추는 수선화와 더불어 기쁨의 감정으로 마음의 질서를 되찾게 되며 “즐거운 무리”속에 합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패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행에서 시인은 “보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시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 없이 시적 전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시인은 수선화를 바라보는 순간 지적 집중력을 완벽하게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자의식에 대한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sup>22)</sup> 이런 시인의 상상력은 세월이 흐른 후의 회상 속에서 이해되고 묘사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위즈워쓰가 주장하는 시의 논리, 즉 시란 회상을 통해 생기는 강력한 감정의 자연발생적인 넘쳐흐름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이 주는 의미 즉, “값진 것”은 시간이 흐른 뒤 정적 속에서 회상할 때 “고독 속의 축복인 심안”에 햇살처럼 비쳐오는 것이다. 처음에 시인은 구름처럼 떠도는 고독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가 아름다운 수선화를 보는 순간 상상력의 발동에 의해 “기쁨(joy)”을 얻고,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난 뒤에 정적 속의 회상을 거쳐 자연발생적으로 넘쳐흘러 시로 표현되는 것이다.

위즈워쓰의 회상된 과거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풀릿(G. Poulet)은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sup>23)</sup>

위즈워쓰에게 과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상이고 영상이며 한번 경험했던 단순한 감흥이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감정으로 영상을 희미하게 회상하려 할때 항상 회복되고 행위에 대한 빠른 변화에 의해 마지막 순간에 그 영상과 하나로 결합된다. 시간적인 영원으로서 우리는 다시

---

22) *Ibid.*, p. 25.

23) Georges Poulet, *Studies in Human Time*, trans. Elliot Colema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p. 184.

한번 두개의 기본적인 요소의 결합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내면화된 감정과 순수한 감흥이다.

이는 지각 경험 당시의 감각과 보다 내면화된 감정은 시간을 초월하여 감각대상과 결합하여 이로써 시적 이미지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호숫가에서 본 수선화가 주는 환희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해당되며 침상에 누워 명상에 잠겨있는 동안 내면의 눈에 투영되는 고독의 환희는 내면화된 감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회상을 통해 시간의 강을 타고 흐르는 과거의 의식을 건져내어 현재와 과거를 동화시킴으로써 인간은 시간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세계를 볼 수 있는 환상의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의 세계를 다시 되찾아 천국의 상태를 잉태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인 것이다.<sup>24)</sup>

이 시 전체에서 보면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 “sprightly”, “gay”, “glee”, “jocund”, 그리고 “bliss”와 같은 단어들은 사물이 살아 생동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기쁨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의 순간을 위한 촉매제이다.<sup>25)</sup>

기계문명,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 산업화 등으로 인류의 삶은 문명의 혜택을 입어 육체노동에서 해방되었으나, 그와 반대로 정서적인 삶은 불안과 고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문명사회에서 고독함을 너무 강하게 느꼈던 시인은, 대자연과의 만남을 통하여 고독의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힘을 지닌 대자연이 주는 기쁨을 맛본다. 그러나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주는 기쁨과 힘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시인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더욱 더 커다란 풍요함을 시인에게 안겨준다. 마지막 연은 수선화와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풍요로운 정서를 다시 경험하고 있음

24)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p. 29.

25) Stephen Prickett. *Coleridge and Wordsworth: The Poet of Growth*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0), p. 102.

을 보여준다.

이따금, 멍하니 혹은 생각에 잠겨  
침상에 누워있을 때면,  
고독의 축복인 심안에  
수선화들은 반짝인다.  
그러면 내 가슴은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

For oft,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at inward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자연의 과거의 아름다운 장면을 단순히 감각적으로 경험한 이후,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 시인은 고요함속에서 회상을 통해 그 정서를 다시 경험함으로써 제 4연에서 무한한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조직화할 뿐 아니라 미래에 그런 경험을 다시 회상해 낼 수 있는 시인의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세상사에 시달려서 외로워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도, 상상의 눈으로 과거의 아름다운 황금 수선화를 만나게 되면 그의 가슴은 미풍에 따라 흥겹게 춤추는 수선화와 더불어 기쁨의 세계로 몰입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시인은 자신의 외로운 심경을 고독의 축복으로 바꾸어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워즈워쓰에게 있어서 재경험의 미학이란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이 시인의 기억의 토양 속에서 꾸준히 자라나 시인의 내적인 공간으로 새로운 의미의 꽃을 피우는 시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말한다. 따라서 재경험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에 일어난 그대로의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서 변형되고 재조직된 상상력의 산물이다.

듀란트는 이 시의 창작 과정에서 경험과 수선화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작과정의 경험에서 수선화들이 고독의 축복인 심안에서 반짝이도록 할 수 있을때, 이러한 종류의 고독(solitude)은 시의 초반에 나오는 우울한 외로움(loneliness)과는 매우 다르다.<sup>26)</sup>

이런 상태에서 시인은 즐거움으로 설레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즐거움은 곧 시인이 미풍에 춤추는 수선화를 보았을 때 시인의 가슴속에 즐거움을 되살아나게 한다.

우리는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자연의 대상물이 상상과 회상을 통해서 시로 변형되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시인은 지난날의 체험을 조용히 명상하고 회상하여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 재생시킨다. 홀로 쓸쓸히 방황하던 시인은 “멍하니 혹은 생각에 잠겨” 과거 기쁨을 주던 수선화를 “고독의 축복인 심안”으로 재생시켜 수선화와 함께 기쁨을 나눈다. 미풍에 춤추는 아름다운 수선화는 상상력의 작용에 의하여 기쁨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조용한 마음 한 가운데에서 회상되어 새롭게 되살아난 과거의 정서적 체험이 표현된다. 인간이 지적 상상력인 심안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생명력을 얻고 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에게 생명과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sup>27)</sup>

이 시에서 흘러가는 구름과 호반의 외로운 시인과 별안간 눈앞에 나타나는 수선화의 무리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다. 수선화를 보는 시인 자신은 주관적 관찰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하는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

---

26)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p. 24.

27) *Ibid.*, p. 25.

고, 반면에 객관적으로 구름처럼 쓸쓸하고 고독한 모습을 느낀다. 수선화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춤추는 모습에 도취되어 시인 자신이 수선화가 되어 자신도 주관적으로 시속에서 자연이 춤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공중의 구름처럼 쓸쓸히 방황하는 시인의 고독은 아름다운 자연의 수선화에서 ‘심안’을 통하여 ‘고독의 축복’을 얻음으로써 위로 받게 된다. 이것은 곧 시인의 생명을 붙여넣는 무한한 기쁨이며 정신적인 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상만이 진리에 도달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sup>28)</sup>을 알 수 있다. 고독했던 시인의 심정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수선화와 함께 춤추면서 기쁨에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경건한 신앙과 함께 정신적 부를 가짐으로써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자연의 순화 때문이다. 브룩스(C. Brooks)는 이 시의 마지막 두행인 “그리하여 내 가슴은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라는 시구가 워즈워쓰의 시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 평하고<sup>29)</sup>, 또 우드링(C. Woodring)의 “고요 속에서의 회상은 그의 마음을 수선화와 다시 함께 춤추도록 만든다.(Recollection in tranquility often makes his heart dance again with the daffodils)”<sup>30)</sup>라는 평도 이 시론을 더욱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워즈워쓰에게 자연은 사랑과 평화와 아름다움의 본체다. 특히 어린시절의 자연은 신에 의해 창조된 선과 평화의 세계인 에덴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인간에 대해 자연은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정신적, 도덕적 교사이자이다. 그가 시적 소재나 시어로써, 시골의 농부나 도시 서민의 체험, 그리고 그들의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들의 인성이나 체

28) Ernest Bernbaum, *Guide Through the Romantic Movement* (New York: Ronald, 1949), p. 46.

29) W. K. Wimsatt and C. Brooks, *Literary Criticism* (New York: Alfred Knopf, 1967), p. 407.

30) Carl Woodring, *Wordsworth* (Boston: Houghton-Mifflin, 1965), p. 78.

힘이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자연의 객관적 장면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연과 자연의 일부인 수선화와 시인이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아무 목적도 없이 구름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긴 여로를 구름처럼 떠다니지만 춤추는 수선화나 반짝이는 별에서 생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로운 시인은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가는 자기성찰의 순간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처음 수선화를 보았을 때 무질서한 무리를 뜻하는 “무리(crowd)”를 사용하나 이것은 곧 “무리(host)”로 전환되고, 수선화가 미풍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개체의 율동을 뜻하는 “불규칙하게 움직임(Fluttering)”과 “흔들림(Tossing)”에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춤춤(dancing)”으로 전환된다. 또한 수선화의 무리 근처에서 움직이는 파도와 수선화 사이에도 일종의 조화감을 나타내기 위해 “수선화 옆 호숫물도 춤췄다.(The waves beside them danced)”에서 전체와 합일을 뜻하는 “춤추다(dance)”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수선화와 파도의 조화와 질서는 홀로 쓸쓸히 방황하는 시인까지 이어져 “그러면 내 가슴은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라고 자연질서와 시인을 합일시킨다. 이처럼 과거에는 단순히 혼란스런 무리로 보였던 수선화의 모습은 이제 조화와 질서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sup>31)</sup> 자연을 떠나 인간이 고립된 부조화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고독을 느꼈을 때 자연과의 재회와 조화는 인간에게 새로운 기쁨과 용기를 준다. 이제 시인도 자연과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연질서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31) Prickett. *Coleridge and Wordsworth*. p. 18.

듀란트는 시인의 상상력은 무색의 빛을 통과시키면 찬란한 무지개의 일곱 색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해내는 프리즘과 같은 것이라 한다.<sup>32)</sup> 자연의 모습에서 얻는 단순한 인상이나 감각적 경험을 받아들여 시적 질서를 창조하는 시인의 상상력은 프리즘에 비유할 수 있다. 워즈워스는 자연과의 친교를 통해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는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성은 프리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회상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워즈워스에게 있어 자연은 영혼(spirit)과 같은 것이 있어 시인과 함께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자연은 인간과 일체가 되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회상을 거쳐 일상 사물을 아름답게 채색해 준다. 우리는 이 시에서 회상된 정서에 대한 명상을 통해 시인의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상상력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는 자연이라는 외계에서 얻은 경험이 어떻게 시인의 상상력에 의하여 변모되는가를 보여주고, 그 경험이 어떻게 창조적 지각에 의하여 회상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상상력이란 특수한 기능을 통해 감각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로 접근하여 신과 만나며, 사물 속의 '정신(soul)'을 느끼고 하나의 생명을 확인한다. 워즈워스의 자연의 경험과 탐험은 유년시절의 추억과 더불어 워즈워스의 기억에 깊이 저장되어 시적 영감의 근원이 된다. 그는 생명이 넘치는 자연과 친숙한 소년으로서, 들판과 숲의 방랑자로서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황홀감과 깊은 즐거움을 받게 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 그는 일찍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슬픔이나 마음의 허전함을 자연에서 보상받고자 한다. 이때에 그는 푸른 하늘, 넓은 들녘, 지저귀는 새 등이 지상의 온갖 신비를 내면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

32)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p. 133.

워즈워스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시대적, 사회적 격동기로 불안정한 정서와 고독한 청년기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의 고독감은 대자연과의 만남으로 위안을 얻게 된다. 그는 대자연으로부터 고독의 병을 치료하는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주는 기쁨과 힘을 한순간으로 끝내지 않고 더욱 더 풍요함으로 시인의 일생을 통하여 범신론적 관점으로 나타난다.

「틴턴 사원」은 워즈워스의 자연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서정 담시집』의 첫 판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고 그 책의 다른 시들보다 나중에 쓰여 진다. 이 시는 『서정 담시집』에 실린 시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삶이 반영된 분명 자서전적인 시로서, 시인이 자신의 내적인 삶에 새롭게 몰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틴턴 사원」에서 워즈워스는 자연과 영적 성장의 인식에 관한 주요한 생각을 표현한다.

고대 사회로부터 인간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태양, 달, 바위나 나무 등 자연현상 내부에 절대적 힘 또는 정령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활론(animism)사상이다. 이는 신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의 모든 것을 신이라 생각하였으며 이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대표하는 범신론(pantheism) 사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

워즈워스는 유년시절에 자연과의 친교를 통해 신비주의적 사상을 갖게 되었으며 자연 속에 살아 있는 능동적 영혼(active spirit)을 감지하고 모든 생명체가 우주적 섭리에 따라 조화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워즈워스는 자신의 시가 자연 속에 있는 생명과 영성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범신론적 자연 즉, 신비주의적 자연관으

로 발전하게 된다.

워즈워스는 케임브리지 대학 3학년 때인 1793년 여름방학 동안 대학 친구였던 웨일즈(Wales) 출신인 로버트 존스(Robert Jones)와 함께 웨일즈 지방의 스노우돈(Snowdon)산을 여행했고 프랑스와 알프스 일대를 도보로 여행한다. 워즈워스는 화이트 섬(the Isle of Wight)을 출발하여 쉐즈베리 평원(Salisbury Plain)을 경유하여 웨일즈 지방의 틴턴 사원(Tintern Abbey)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23세였다. 이 시는 1798년에 다시 여동생 도로시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을 때의 자연의 모습과 5년 전의 그 자연의 모습을 회상하며 쓴 것인데, 기억속에 저장되어 있는 자연이 그의 정신적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이 시에 표현되어 있다. 기억된 자연은 경험을 말하며 워즈워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시인은 이 시에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모색한다. 특히 이 시는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이 직접 시상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와 다르다.<sup>33)</sup>

워즈워스는 이 시에서 그의 자연종교의 내용에 어떤 뚜렷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의하게 된다. 이 변화란 그의 자연종교가 자연과의 애정의 교류를 통하여 정신적 영향을 받는다는 자연감화설로부터의 변화를 말한다. 즉, 자연속에는 어떤 근원적인 생명 또는 영적인 성질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직감하여 친교하고, 동체가 됨으로써 비범한 감동과 희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소위 범신론적 자연 신비주의로의 발전이다.

시인은 5년 전 처음 보았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의 틴턴 사원과 와이강 골짜기를 중심으로 그림같이 펼쳐진 전원의 평화스러운 광경에 대하여, 명상적이며 상상적인 관찰을 통하여 이 시를 이끌어 간다. 그리하여

---

33) Geoffrey Durant, *William Wordswort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9), p. 34.

이 시에 사용된 언어는 순수하고 명백하며, 시 뒤에 숨겨진 열정은 강렬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의 농도가 강렬하며 신념으로 차 있고, 솔직한 표현 속에서 개인적 열정이 진리처럼 나타나 있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을 일으켜 준다. 「틴턴 사원」의 첫 부분에 대해 무어맨(M. Moorman)은 18세기의 풍경시와 유사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것에 처음으로 감사한다. 처음 20행까지 그가 와이강의 풍경을 다시 한번 접했을 때의 애정은 비록 지나간 시간동안 단지 한번 밖에 못 봤을지라도 마음속에 새겨 두었던 자연에 대한 기쁨의 힘과 강렬함을 보여준다.<sup>34)</sup>

첫 부분은 18세기 시의 영향을 드러내고 워즈워쓰의 자연 풍경에 대한 진한 사랑의 기억을 입증한다.

「틴턴 사원」은 5년만에 와이강을 찾아 마음의 고뇌를 치유하고 생의 위안을 얻는 과정을 보이는 시이다. 비정한 현실세계에서 상처받은 워즈워쓰에게 와이강은 정신적 안정과 재활의 창조적 세계로 변모하는데,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워즈워쓰는 5년전의 시간을 현재에 음미하여 자연 안에 존재하는 의미와 신념을 과거의 명상과 현재의 시작 행위에 의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다. 와이강의 전경은 그를 명상 속에 잠기게 하고, 자연에 대한 열정적인 몰입을 통해 생명의 존재를 느끼며 평온한 안식과 기쁨을 느낀다.

다섯해가 지나갔다. 다섯해의 긴 겨울과 함께 다섯여름이  
그리고 나는 다시 듣는다.

34) Mary Moorman, *William Wordsworth, The Early Years 1770-1803*. (London: Oxford UP, 1957). p. 403.

내지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함께  
산 속의 샘들에서부터 굴러 흐르는 이 강물소리를

Five years have past; five summers, with the length  
Of five long winters! and again I hear  
These waters, rolling from their mountain-springs  
With a soft inland murmur.

(1 - 4)

시인은 5년만에 다시 찾은 자연 풍경들과의 감격적인 조우를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섯(Five)”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도시 문명의 부조화속에서 헤매이던 시인은 와이강의 자연의 품속에서 휴식과 평화, 질서와 조화, 그리고 창조적 힘을 찾게 된다. 와이강의 풍경은 5년 전 턴턴 사원의 폐허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연결 회상되어, 당시에 느꼈던 감각 경험과 내적 감정을 환기시켜 주는 심상이다. ‘다섯 번의 긴 겨울’이란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지나간 5년 동안의 쓰라린 과거가 아무리 고뇌의 시간이었다 해도, 와이강을 찾은 시인은 다시금 새로운 창조적 힘을 체험한다.

일상적인 틀에 박힌 삶과, 오염 및 소음으로 얼룩진 도시 생활을 벗어나 다시 찾아와 바라보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와이강의 풍경에 몰입한 시인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무거운 고통이 다소나마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블룸(H. Bloom)은 워즈워쓰에게 감미로운 감각을 환기시키고 도시의 피곤함을 치료해 주는 것은 오직 시인의 회상력 덕분이라고 말한다.<sup>35)</sup>

‘산속의 샘’은 이러한 정신적 쇄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

35) Harold Bloom, "The Myth of Memory and Natural Man," in *Wordsworth: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M. H. Abram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2), pp. 96-97.

거기엔 감미로운 내지의 속삭임이 있고, 이는 기나긴 은둔을 거쳐 새로운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변신해 가는 자연의 속삭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산속의 샘’이 암시하는 심적 쇠신의 이미지나 그것이 함축하는 창조성의 의미는 워즈워쓰에게는 자연의 은둔과 조화, 평화와 창조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듀란트는 에텐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데, 워즈워쓰가 그려내는 낙원의 이미지는 단순히 신화적인 관념의 세계로 나타나기보다는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에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6)</sup> 수직으로 뻗어 오른 절벽을 통해 하늘의 고요와 지상의 평화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현세적 자연 풍경이 곧, 낙원의 이미지와 인간적인 요소가 동시에 공존하는 장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바라본다.  
 거친 외딴 정경에  
 보다 깊은 단절의 생각을 심어주고  
 풍경과 하늘의 고요를 이어주는  
 이 가파르고 우뚝 솟은 절벽들을

Once again  
 Do I behold these steep and lofty cliffs,  
 That on a wild secluded scene impress  
 Thoughts of more deep seclusion; and connect  
 The landscape with the quiet of the sky.

(4 - 8)

여기서도 시인은 와이강 주변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일대가 온통 적막한 고요로 뒤덮여 사회와는 동떨어져 숨엄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

36) Durant, *William Wordsworth*. p. 35.

다. 이처럼 시인은 자연의 한가하고 고요한 느낌을 통하여 자연이 인간존재의 바탕이 된다는 주제를 전개시킨다. 자연의 도덕적 기능을 표현하려 한 점에서 워즈워쓰는 단순한 18세기의 자연 찬양자들과 다른 평가를 받는다.<sup>37)</sup>

시의 첫 행부터 8행까지는 연속되는 시간과 영원성, 특별한 장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시점, 즉 지나간 세월 속의 기억의 시점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내 다시 여기 울창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쉼  
 그리고 이 계절이면 털 익은 열매로  
 똑 같은 녹음의 색을 옷입고  
 숲과 덩굴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감춰버리는  
 이 시골집의 밭들, 이 과수원 숲을 볼 그날이 왔다.  
 다시 한번 나는 본다.  
 이 생울타리들을, 생울타리라기 보단  
 무성하게 제멋대로 자란 관목들의 가느다란 줄기들을  
 바로 문앞까지 푸른 이 목가적 농장들을  
 나무들 사이로 고요히 솟아오르는 구불구불한 연기들을  
 집없는 숲에서 방황하며 사는 이들이나  
 불가에 홀로 앉아있는  
 어떤 은둔자의 동굴을 어렴풋이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The day is come when I again repose  
 Here, under this dark sycamore, and view  
 These plots cottage-ground, these orchard-tufts,  
 Which at this season, with their unripe fruits,  
 Are clad in one green hue, and lose themselves  
 'Mid groves and copses. Once again I see  
 These hedge-rows, hardly hedge-rows, little lines  
 Of sportive wood run wild; these pastoral farms,

37) James Benziger, "Tintern Abbey Revisited", *Lyrical Ballads: A Casebook*, eds. Alun Jones and William Tydeman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2), p. 235.

Green to the very door; and wreaths of smoke  
 Sent up, in silence, from among the trees!  
 With some uncertain notice, as might seem,  
 Of vagrant dwellers in the houseless woods,  
 Or of some Hermit's cave, where by his fire  
 The Hermit sits alone.

(9 - 22)

워즈워쓰는 “울창한 시카모 나무 아래서” 농가를 바라보고 있다. 자연의 질서 속에 인간의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그는 단순히 낭만적인 분위기의 오두막을 묘사하기보다는, 오두막 주변의 황량한 자연과의 일체적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오두막집이나 과수원과 같은 인간문명과 시카모 나무와 절벽으로 상징되는 자연환경과의 대조와 조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합일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워즈워쓰는 자연풍경과 인간 사이를 상상력이 지닌 힘에 의한 안정된 마음의 상태에서 연결한다. 현재의 눈으로 보는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인간 마음에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것은 워즈워쓰가 자연의 실체를 확고하게 믿기 때문이라고 블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질서에 대한 바램과 지나친 질서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에 만족시키는 이 특별한 조화는 먼저 ‘푸른(green)’이란 단어의 사용과 나중에 ‘바로 문앞까지 푸른(Green to the very door)’으로 묘사되는 ‘목가적 농장(pastoral farms)’에서 집약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이 푸른 목장에 산다는 인간문명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도시의 문명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sup>38)</sup>

38) Harold Bloom,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Revised (Ithaca: Cornell UP, 1971), p. 135.

14-16행에서 “다시 한번 나는 본다. 이 산울타리들을, 산울타리라기 보단 무성하게 제멋대로 자란 관목들의 가느다란 줄기들을”이라는 구절에서 자연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와의 일체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울타리는 인간의 거주지나 존재를 상징하는데, 울타리가 제멋대로 자란 수목의 가느다란 행렬로 되어 있음은, 울타리 본연의 인위적 기능의 상실을 뜻하며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인간적 요소와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자연계에서 인간의 존재는 소외되어 있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해 듀란트는 인간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공존하는 낙원적 축복의 생활상을 워즈워쓰는 바로 문 앞까지 푸른 “목가적 농장”이나 고요 속에서 나무들 사이로 잔잔히 피어오르는 “꽃다발 같이 구불구불한 연기”처럼 마음과 자연과의 합일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의 심상을 사용하였다고 한다.<sup>39)</sup> 이와같은 내용을 통해 당시 시인의 개인적 처지가 이 시의 창작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워즈워쓰는 으뜸가는 자연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묘사만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서 자연의 풍경을 자세하고 사진처럼 보여주는 묘사를 기대한 독자들은 실망할 수도 있다. 「틴턴 사원」에서 시인이 보거나 들은 것들은 시인 자신의 정서를 투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진다.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강조되는 표현들 -“다시 한번 나는 듣는다”, “다시 한번 나는 본다”, “다시 한번 나는 본다”-을 통하여 워즈워쓰가 수동적으로 광경을 통해 감동을 받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는 그가 보거나 들은 것을 상세하게 그 광경의 고요한 조화를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주의 깊게 구성한다. 이것은 그 풍경이 워즈워쓰가 자연을 감지한 통일체를 상징하

---

39) Durant, *William Wordsworth*. p. 38.

고 또한 우리가 워즈워스가 마지막 방문 이래로 그 풍경이 그에게 미친 정신적 이미지를 살피게 하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반복이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면서 나오는 것을 본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에서 워즈워스는 그의 젊은 시절의 감정적 격렬함에서부터 어른이 된 후의 자연에 대한 좀더 반영적인 응답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sup>40)</sup>

워즈워스는 프랑스 혁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인 1791-2년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혁명적 열기에 공감하고 그것을 적극 옹호하였지만 폭력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린 혁명에 대해 지극한 회의를 갖고 있었다. 그는 당시 프랑스 블로이즈(Blois)에서 만나 사랑하게 된 아네트 발롱(Annette Vallon)과의 관계로 인한 고뇌, 그리고 특히 그녀와의 사이에 딸 캐롤라인(Caroline)을 두게 되었으나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됨으로써 일생동안 잊지 못할 비극을 겪게 된다. 귀국 후에도 정착할 집도 없고, 사랑하는 연인과 자식과의 헤어짐,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선전포고로 인해 재회의 길은 막혀버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코뱅 당원들의 과격한 행동 등으로 인해 혁명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당시의 견잡을 수 없는 내면적 갈등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와이강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공허하고 울적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현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 워즈워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의 기쁨으로 일치시켜 시로 승화시킨다. 그래서 도시의 소음 속에서 과거 자연이 준 기쁨의 정서를 되살려 마음의 고뇌를

---

40) Alan Gardiner, *The Poetry of William Wordsworth* (London: Penguin Books Ltd.,1987) p. 56.

치유하려 한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기억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환기시켜준다. 자연과의 재회에서 오는 기쁨의 감정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생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곧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시인의 감각 속에서 순수한 마음과 일체가 된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외로운 방에서나, 도시의 소음 속에서, 더욱더 그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다.

오랜 부재를 통해  
이 아름다운 형상들은  
나에겐 장님눈에 비친 풍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종종 외로운 방 안에서  
마을과 도시의 소음 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빚졌었다.  
지루한 시간에  
피 속에서 그리고 심장을 따라 느끼는 감미로운 감각들을  
심지어 내 더욱 순수한 정신 속으로 스며들어  
고요히 되살아나는 감각들을  
기억되지 않는 즐거움의 느낌들 또한  
아마 그런것들은  
선량한 사람의 삶의 최선의 부분에  
그의 작고, 이름없는 기억되지도 않는 친절과 사랑의 행위에  
결코 가볍거나 사소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These beauteous forms,  
Through a long absence, have not been to me  
As is a landscape to a blind man's eye:  
But oft, in lonely rooms, and 'mid the din  
Of towns and cities, I have owed to them,  
In hours of weariness, sensations sweet,  
Felt in the blood, and felt along the heart;  
And passing even into my purer mind  
With tranquil restoration:--feelings too  
Of unremembered pleasure: such, perhaps,  
As have no slight or trivial influence

On that best portion of a good man's life,  
His little, nameless, unremembered, acts  
Of kindness and of love.

(22 - 35)

“오랜 부재를 통해 이 아름다운 형상들은 나에겐 장님눈에 비친 풍경은 아니었다”라는 구절은 과거 아름다움이 시인의 회상과 환상, 그리고 상상 속에서 자주 재생되었음을 말한다. 자연을 떠난 때라도 그 기억되는 이미지는, 시인의 심미적 감각을 만족시켜 주는 능력이 있어서, 현실의 고독과 지루함 속에서, 기쁨으로 그의 삶을 전환시키는 모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시인은 그러한 자연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은 지루한 시인의 삶에 생동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름다운 형상들”은 자연만의 미가 아니라 인간 사회속에 어울리는 미를 의미한다. 그 형상들에 대한 시인의 추억은 고독과 적막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연상한다. 시인은 이러한 정감을 혈관속에서 느끼고 심장에서 고동치는 “감미로운 감각들”이라고 설명한다.

워즈워스는 과거 아름다운 자연의 형상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보고 있다. 자연이 그의 인생전체, 인격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피 속에서 그리고 심장을 따라 느꼈다.”라고 읊는다. 대자연의 모습은 그의 마음과 정서, 인격속에 무언의 말을 하여 그를 도덕적인 행동으로 인도한다. 회상속에서 재생된 자연이 주는 기쁨은 현실의 고통과 지친 마음을 잊게 해주며 그로 하여금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워즈워스는 이처럼 환경과의 질서의 조화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 워즈워스는 단순히 아름답고 평화스런 자연을 묘사하는 것에서 떠나, 자연과 시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나아가 자연과 인간 마음 사이에 빚어지는 상

호관계 및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에 못지않게 나는 믿는다.  
그들에게 더욱 숭고한 모습을 띤  
아마도 또 다른 선물을 빚졌다고; 축복받은 분위기,  
신비의 무게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그 속에서 무겁고 지친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 고요하고 축복받은 분위기 속에서  
애정은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이 육신의 숨결과  
우리 인간의 피의 움직임조차  
거의 정지된 채  
우리는 육체 속에서 잠들고  
살아 있는 영혼이 된다.  
조화의 힘과 기쁨의 심오한 힘에 의해  
조용해진 눈으로  
사물의 생명을 들여다본다.

Nor less, I trust,  
To them I may have owed another gift,  
Of aspect more sublime; that blessed mood,  
In which the burthen of the mystery,  
In which the heavy and the weary weight  
Of all this unintelligible world,  
Is lightened:--that serene and blessed mood,  
In which the affections gently lead us on,--  
Until, the breath of this corporeal frame  
And even the motion of our human blood  
Almost suspended, we are laid asleep  
In body, and become a living soul:  
While with an eye made quiet by the power  
Of harmony, and the deep power of joy,  
We see into the life of things.

(35 -49)

마음속에 기억된 아름다운 자연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 외로움과 지루함을 느낄 때 감미로운 느낌으로 시인의 순수한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선량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친절과 사랑의 행동들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 기억된 자연은 또 다른 선물로서 고요한 축복 받은 기분을 주는데, 그 선물을 통해 이 순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의 짐이 그리고 무겁고 지루한 모든 이 알 수 없는 세상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다시 말해 이 고요한 축복 받은 기분 속에서는 기분이 우리를 온화하게 계속 이끌어 가서 육체의 호흡이 그리고 피의 운동조차도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여 우리는 육체 속에 잠들어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 이 순간에 우리는 조화의 힘과 기쁨의 깊은 힘에 의해 고요해진 눈으로 사물의 생명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처럼 워즈워스의 정신세계를 무한하게 열어주는 와이강변의 아름다운 형상들이야말로 그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기분을 갖게 해준다. 이것은 지식이나 통찰력보다는 심오한 사고를 형성하는 내면적 안정이나 조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의 고요함 속에 깊이 젖어든 시인의 마음과 자연 사이에 동질성이 확립된다. 5년만에 찾은 와이강과 워즈워스의 반응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감이 없어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의 비범한 실체를 느끼게 한다. 이 대목에서 사고와 사고의 대상, 감정과 감정의 대상이 모두 하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들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스며들어 인간을 보다 도덕적 인간이 되게 하는 기쁨을 자아낸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헛된 믿음일지라도  
오! 얼마나 자주 어둠과 기쁨없는 낮의 많은 형체들 속에서  
실속없는 안타까운 충동과  
세상에 대한 열병이  
내 심장의 박동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자주 마음속에서 나는 너에게 향했던가  
숲이 우거진 와이강변이여  
그대 숲속의 방랑자여

If this  
Be but a vain belief, yet, oh! how oft--  
In darkness and amid the many shapes  
Of joyless daylight; when the fretful stir  
Unprofitable, and the fever of the world,  
Have hung upon the beatings of my heart--  
How oft, in spirit, have I turned to thee,  
O sylvan Wye! thou wanderer thro' the woods,  
How often has my spirit turned to thee!

(49 - 57)

와이강변의 자연에 대한 회상은 질서나 조화에 대한 자연의 도덕적 기능을 확인케 하고, 모든 무겁고 지겨운 세상의 고뇌가 가벼워지는 그런 축복 받은 기분을 창조해 내는 힘인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영원한 정신적 원천으로서 도시의 소음과 혼돈과는 대조되는 세계인 것이다. 또한 시인은 계시적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것을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 풍경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핵심을 파악한다.

도시의 소음과 혼돈이 만들어내는 찌들린 삶 속에서 시인은 확실하게 와이강의 평화를 갈망해 온다. 도시에서의 안달하는 삶은 빨라지는 박동과 불규칙적인 호흡을 암시하며 시의 신속하고 불규칙한 시의 리듬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와이강변”에서의 갈망은 단순한 자연적 갈망이라기보다는 더욱 질서 있고, 더욱 고요한 환경이 줄 수 있는 평화를 요구하는 거의 신체적 요구인 듯 싶다.

희미하고 아스라한 많은 인식과  
다소 슬픈 당혹감과 더불어  
마음의 영상이 다시 되살아난다.

여기 내가 서서 현재의 기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순간의 미래를 위한 생명과 양식이 있다는  
즐거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기를 감히 나는 바란다.

And now, with gleams of half-extinguished thought,  
With many recognitions dim and faint,  
And somewhat of a sad perplexity,  
The picture of the mind revives again:  
While here I stand, not only with the sense  
Of present pleasure, but with pleasing thoughts  
That in this moment there is life and food  
For future years.

(58 - 65)

자연에서 그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에 대한 생각은 희미하지만, 다시 이렇게 자연을 찾으니 기억 속에 담겨있던 마음의 그림이 다시 살아난다. 또한 이 시점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슬프고도 당혹스럽다. 이때 “당혹감”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시인의 정신적인 성숙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변질되어 가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조금은 슬픈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연이 다시 기억되어 미래의 생명과 양식이 돼 주기를 소망한다. 여기서 자연은 워즈워쓰에겐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정신적 “생명과 양식”이 된다.

자연이 이끄는 곳은 어디든지 노루처럼  
산위, 깊은 강가와 외로운 시냇가를  
뛰어다닐 때와는 달라졌지만  
그가 두려워하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가 사랑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라기 보단  
왜냐하면 그 시절에 자연은

(내 소년시절의 천박한 쾌락과 그 쾌락에 즐거워하던  
모든 동물적 활동의 존재들은 사라져)  
내게 있어 모든 것이었다

When like a roe  
I bounded o'er the mountains, by the sides  
Of the deep rivers, and the lonely streams,  
Wherever nature led: more like a man  
Flying from something that he dreads, than one  
Who sought the thing he loved. For nature then  
(The coarser pleasures of my boyish days  
And their glad animal movements all gone by)  
To me was all in all.

(67 - 75)

시인은 5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 자연에 대한 그의 관점과 자연이 그에게 제공한 기쁨의 성질을 설명한다. 워즈워쓰는 어린 시절 자연과의 친교로 경험한 “고통스런 환희”를 다시 향유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즐겁게 뛰어 놀던 시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 마리의 노루처럼 산을 뛰어 다니던 자신의 5년 전 모습을 기억에서 풀어낸다. 5년 전 자연은 그에게 감각적 개념의 기쁨을 주었고,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자연은 그에게 “모든 것”이었고, “열정”이었고, “욕망”이었으며 “감정이자 사랑”이었다.

시는 계속하여 현재로 돌아오면서 워즈워쓰의 자연에 대한 태도의 발전을 보여준다. 시인은 5년 전과는 달리 자연을 감각적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에 신이 내재해 있음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기쁨을 묘사한다.

그 시절은 지나갔다.  
그 모든 고통스런 즐거움은  
그 모든 어지러운 황홀감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런 상실에 대해 나는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다른 선물들이 잇달았다  
 나는 풍성한 보상이 있다고 믿는다.  
 철없는 젊은 시절과는 달리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자주 격렬하지도 귀에 거슬리지도 않는  
 허나 마음을 맑게 하고 자제하는 풍성한 힘을 지닌  
 인간미 흐르는 고요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며

That time is past,  
 And all its aching joys are now no more,  
 And all its dizzy raptures, Not for this  
 Faint I, nor mourn nor murmur; other gifts  
 Have followed; for such loss, I would believe,  
 Abundant recompense. For I have learned  
 To look on nature, not as in the hour  
 Of thoughtless youth; but hearing oftentimes  
 The still sad music of humanity,  
 Nor harsh nor grating though of ample power  
 To chasten and subdue.

(85 -93)

5년 전의 열정처럼 산과 들을 어린 사슴처럼 뛰어 다니면서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연에 대한 기쁨과 황홀은 사라졌지만, 시인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에 대한 성숙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생각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인간미 띤 고요하고 슬픈 음악”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때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체험하고 그것이 시인을 음악의 조화처럼 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자연 속에서 위안과 교훈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연은 사상의 안주지, 마음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마음을 맑게 하는 그 슬픈 음악에 대해 블룸은 “고요한 음악은 그것이 인간의 감각적 귀가 아니라 정신에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

가 슬픈 음악을 들을 때 그는 인간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과의 끊을 수 없는 고리의 증거를 듣는다.”라고 말하면서<sup>41)</sup>,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결부시키고 있다.

어린시절에 경험한 자연에 대한 물활론적 개념은 시적인 성숙과 더불어 그의 시에서 포괄적 관념이 되어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변화한다. 시인의 이러한 관점이 다음의 시구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고양된 사고의 기쁨으로 나를 설레게 하는 존재를  
보다 더 깊게 서로 섞여있는  
그 무엇의 숭엄한 의식을  
그 존재의 집은 저무는 태양빛,  
등근 대양과 살아있는 대기,  
그리고 푸른 하늘과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모든 사고하는 사물들,  
모든 사고의 대상들을 나아가게 하고  
만물 속을 구르는 운동과 정신을 나는 느꼈다.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setting suns,  
And the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  
And rolls through all things.

(93 - 102)

위즈워쓰는 현실의 고통과 고뇌를 자연속에서 극복하려 한다. 그는 상상

---

41) Bloom, *The Visionary Company*. p. 135.

력에 의해 자연의 사물에 조화와 통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이며 치유력의 원천이므로 자연에서 환희를 느끼는 순간은 현실의 고뇌와 상실을 초월하게 되는 이상적 세계이다. 워즈워스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에서 더 나아가 우주와의 궁극적 합일을 인식하는 경지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우주와 자연은 본질적으로 조화와 질서의 세계라고 보는 그의 철학과 관계되며, 그의 시와 인생관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와이강의 자연은 도시의 문명생활에서 체념에 빠진 워즈워스에게 용기를 주고 있으며 새롭게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조적 힘을 부여해주고 있다. 즉,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 자연의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도덕적, 정신적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승화된 사상의 즐거움을 맛보며 어떤 영적인 존재를 느꼈다고 말한다. 숭고한 감각 속에서 더욱 깊이 파고드는 어떤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빛이 되고 대양과 살아있는 대기와 푸른 하늘이 되어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자연과 우주의 신비에 대한 시인의 범신론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이 세상을 위대한 신의 한 모습으로 보려하고, 자연을 신의 섭리가 충만한 평화와 안식, 질서와 영원, 그리고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생각한다.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 깃든 신의 존재를 감지한다. 즉, 고양된 생각의 기쁨으로 나를 설레게 하는 존재가 자연 속에 내재해 있음을 감지한다. 그 존재는 한층 더 깊이 자연 속에 침투되어 있는 숭고한 느낌을 주는 존재이며, 모든 사물의 중심을 관통하여 구르며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사물과 생각의 모든 대상을 그러하도록 추진시키는 운동이며 영혼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영혼은 하나이다. 여기에서 그의 범신론이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신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속에 내재된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인식 과정은 그의 마음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서, 자연의 형상이 마음속에서 일체가 되고 모든 삼라만상의 조화와 질서가 마음속에 느껴지고, 우주의 본질까지 파악할 때 워즈워쓰의 신비적 개념은 형성된다. 그 결과 자연에 내재하는 이러한 신비적 개념은 우주의 궁극적인 통일성에 대한 감각과 모든 사물과 모든 의식 속에 스며드는 하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어,<sup>42)</sup> 그의 자연관의 실체를 이루게 된다.

레이더(M. Rader) 역시 범신론에 대한 스피노자(Spinoza)의 사상이 이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외부의 물질적 형태뿐 아니라 내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스피노자에게서 일원론적 범신론을 발견한다. 여기서 범신론이란 신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모든 일반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워즈워쓰가 스피노자에게서 끌어내었던 아니든 그의 시에 반영되어 있다. 그의 자연에 대한 범신론적 견해는 「틴턴 사원」의 이 부분에 가장 완벽히 표현되어 있다.<sup>43)</sup>

인간의 정신은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희열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인의 노력과 절대자인 신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희열의 본질은 충만한 사랑과, 신의 보호아래 있으니 안전하다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이다. 그는 자연과 인간에게 통일적으로 흐르는 영기를 느꼈으며 이 영기는 인간의 한계를 넘게 하는 구원의 힘이며 범신론이다.

워즈워쓰를 흔히 자연의 숭배자라고 한 것은 그가 자연을 신성화하고 신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로 볼 수 있다. 그가 자연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자연에 신격을 부여하는 것은 신과 자연을 동등하게 보는 범신론적

---

42) Durrant, *William Wordsworth*. pp. 41-42.

43) Melvin Rader, *Wordsworth: A Philosophical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1968), p. 136.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주만물은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생동하는 힘이 깃들여 있는 바 그 힘은 곧 자연이며 제각기 생명을 갖고 있기에 모두 한 생명체라고 노이어스(R. Noyers)는 말한다.<sup>44)</sup>

초기에 워즈워쓰가 가졌던 자연관은 물활론과 같은 자연종교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원시 자연종교인 이신론(deism)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연숭배 사상은 기성종교에서와 같은 교조(dogma)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다. 이른 시인이 자연과의 친화를 통해서 자연의 신비성에 대해 갖는 감화와 도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속적인 자연사상은 시인이 정신적 성숙과 함께 변모 발전한다.

「턴턴 사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시인은 희열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범신론 즉, 신비주의적 자연관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초원과 숲, 산  
그리고 우리가 이 푸른 대지위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눈과 귀로 반쯤은 창조하고 지각하는  
눈과 귀의 모든 그 거대한 세계를 사랑한다.  
나는 자연과 감각의 언어속에서  
내 가장 순수한 사고의 닳을  
내 심장의 유모이자 안내자이며 보호자를  
모든 나의 도덕적 존재의  
영혼을 발견하고 즐거워한다.

Therefore am I still  
A lover of the meadows and the woods  
And mountains; and of all that we behold

---

44) Russel Noyers, *English Romantic Poetry and Prose* (London: Oxford Univ. Press, 1956), p. 237.

From this green earth; of all the mighty world  
Of eye, and ear,--both what they half create,  
And what perceive; well pleased to recognize  
In nature and the language of the sense  
The anchor of my purest thoughts, the nurse,  
The guide, the guardian of my heart, and soul  
Of all my moral being.

(102 - 111)

워즈워쓰는 자연과 감각의 언어 속에서 가장 순수한 사고의 닳과 정신적 핵심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어떤 숭고한 느낌을 갖게 된 시인은 그 결과 모든 자연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자연에 대한 성숙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며, “인간미 흐르는 고요하고 슬픈 음악”을 듣도록 이끌어 준다. 시인은 눈에 보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 초록의 대지에서 마음의 눈으로 창조하고 지각하는 것을 사랑한다. 시인은 자연과 감각의 언어 속에서 자연이 순수한 사고의 닳이요, 심장의 유모이며, 인생의 안내자요 마음의 후견인이며 도덕적 존재의 핵심임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눈과 귀가 반쯤 창조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어린시절에는 자연과 인간의 구분이 거의 사라져서 인간은 자연 속에 거의 완전히 흡수되지만 성인에게는 자연은 외부의 것으로 객관화된다. 자의식이 발달한 단계지만 이것은 그의 자유이자 슬픔이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자신의 감각의 문으로만 들어오며 자기에게 올 수 없는 자연은 자기의 상황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의 눈과 귀는 감각의 문으로서 수동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다. 그 외부 현상들을 그는 창조할 수는 없다. 그 현상들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 현상들 중 그가 선택하는 일은 일종의 창조이며 그러한 창조행위는 기억을 바탕으로 한 상상에 의해 안내된다. 또한 이 상

상이란 정신활동으로 시를 쓰는 것이다.

위즈워쓰에게 있어 자연과의 교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신적 성숙을 지적할 수 있다. 시 전반을 통하여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자연에 대한 그의 심경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묘사한다. 소년 시절에는 자연 속에서 단순한 감각적 환희를 느꼈으나, 점차 성장함에 따라 그 기쁨은 피를 끓게 하고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변한다.

셰이커트(H. C. Schweikert)는 「틴틴 사원」에 나타난 네 단계의 시인의 성장 과정을 걱정기(The Period of blood), 감각기(The Period of senses), 상상기(The Period of imagination), 정신기(The Period of soul)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 언급한다.<sup>45)</sup> 먼저 걱정기는 소년시절에 산과 들을 어린 사슴처럼 뛰어 다니며 자연을 단지 육체적으로 즐기고 쾌락과 환희를 느끼는 시기이고 감각기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에 대한 열정을 느끼는 시기이며 상상기는 령(soul)에 대한 자연의 고요한 영향을 이해하는 시기이고 마지막 정신기는 정신적 존재로써 자연과 깊은 사상적 공유를 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위즈워쓰의 정신적 성숙 단계는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특히 자연과의 깊은 친교를 통하여 자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소년, 청년기의 태도를 모두 극복하고 최후로 도달한 단계로 이 단계가 바로 위즈워쓰의 자연에 대한 진정한 태도로서 그는 자연 속에서 심안(inward eye or imagination)을 통해 기쁨을 맛보며,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인 령을 느낀다. 그리고 감각은 감정과 함께 완전히 사상화되고 융합되는 형태에 이른다. 그는 외계의 자연에서 인간 내면의 정신에 어떤 신성한 존재가 있어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게 함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한다는 사상을 표현한다.

---

45) H. C. Schweikert, et. al., *Adventures in English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1932), p. 478.

자연이란 감각이 전하는 것이며, 사상이란 감각으로 생겨 감각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 사상의 내용은 인간관계에서 생기고 모든 외계를 움직이는 것은 령이 깃들여 있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자연의 령이 인간의 령과 교감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즉, 그는 상상의 직관력을 통하여 자연의 미가 주는 심오한 기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어른이 된 이후의 워즈워스에 있어서 자연은 생명이 없는 분리된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영적 교류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외적으로 비친 실재적인 자연의 색과 형태 너머의 자연에 내재된 정신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워즈워스의 자연과 자신을 감지하고 연결짓는 통합력은 둔한 움직임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것으로서 작용한다.

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여,  
내 사랑스러운 친구여 너의 목소리 속에서 나는  
내 지난날의 마음의 언어를 포착하고  
너의 섬광과도 같은 야성적 눈길에서  
내 지난날의 기쁨을 읽는다.  
오! 그러나 잠시라도 너에게서 지난날의 나를 보았으면,  
내 사랑스런 누이여!

thou my dearest Friend,  
My dear, dear Friend; and in thy voice I catch  
The language of my former heart, and read  
My former pleasures in the shooting lights  
Of thy wild eyes. Oh! yet a little while  
May I behold in thee what I was once,  
My dear, dear Sister!

(115 - 121)

소년시절과는 달리 자연에서 즉각적이고 열정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따라서 자연과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시인은 끝으로 그러한 통합을 이루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누이 도로시에게서 찾고자 한다. 그리하여 “숲이 무성한 와이강”을 부를 때처럼 시인은 열렬한 사랑의 어조로 도로시를 부른다. 이 시행에서 여동생 Dorothy는 아직까지도 “천부적 정신(genial spirit)”을 지니고 있다.

아직도 자연에 교감하여 기쁨을 보이는 도로시를 바라보며 워즈워스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자연과의 교감에서 자신이 지난날 공상(fancy)의 환희를 느꼈던 것을 회상한다.

나는 자연이 결코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음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세월을 통해  
 기쁨에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연의 특권임을 알기에,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 내부에 있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고  
 고요함과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줄 수 있고  
 고상한 사고들로 먹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악한 말들과 경솔한 판단, 이기적인 사람들의 조소도  
 친절함이 없는 인사, 모든 일상생활의 지루한 관계도  
 우릴 이길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가득차 있다는 우리의 유쾌한 신념을  
 흐뜨리지 못할 것이다.

and this prayer I make,  
 Knowing that Nature never did betray  
 The heart that loved her; 'tis her privilege,  
 Through all the years of this our life, to lead  
 From joy to joy: for she can so inform  
 The mind that is within us, so impress

With quietness and beauty, and so feed  
With lofty thoughts, that neither evil tongues,  
Rash judgments, nor the sneers of selfish men,  
Nor greetings where no kindness is, nor all  
The dreary intercourse of daily life,  
Shall e'er prevail against us, or disturb  
Our cheerful faith, that all which we behold  
Is full of blessings.

(121 - 134)

그리고 그는 그녀를 통하여 과거 자연에 대한 열정과 정신을 되찾게 된 것을 고백한다. 자연은 결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온 세월을 통해 기쁨에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연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 내부의 정신을 가르치고 고요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또 고상한 사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험구나 경솔한 판단이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조소도, 친절함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인사도 또한 온갖 일상생활의 황량한 교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우리의 명량한 신념을 흩어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노래한다.

워즈워쓰가 시인을 두고 자연을 섬기는 사제 혹은 자연의 찬미자라고 하는 것도 자연의 도덕적 기능을 파악하는 자가 바로 시인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전원적인 생활에서만 인간 본질적 열정이나 감정은 성숙해 질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 존재다. 자연과의 접촉은 행복의 첩경이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자연과 접할 수 없다. 그래서 워즈워쓰는 기억이나 회상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달이  
고독한 산책길에 있는 너를 비추고  
안개 자욱한 산바람이  
너에게 자유로이 불어오게 하라

어쩌면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어야 하고  
너의 강렬한 눈으로부터 과거 실재의 이 미광들을  
포착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이 즐거움이 넘쳐흐르는 강둑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을 잊지 못하리  
그리고 오랫동안 자연의 찬미자였던 내가  
그 숭배 의식에 지치지 않고 여기 왔다.  
더 따뜻한 사랑을 품고라기보단  
오! 한결 더 정스러운 사랑의  
한층 더 깊은 열정을 품고서

Therefore let the moon,  
Shine on thee in thy solitary walk;  
And let the misty mountain-winds be free  
To blow against thee:

Nor, perchance--  
If I should be where I no more can hear  
Thy voice, nor catch from thy wild eyes these gleams  
Of past existence--wilt thou then forget  
That on the banks of this delightful stream  
We stood together; and that I, so long  
A worshipper of Nature, hither came  
Unwearied in that service: rather say  
With warmer love--oh! with far deeper zeal  
Of holier love.

(134-137, 146-155)

시인은 여동생이 자연과 보다 더 친밀하기를 바란다. 달이나 안개, 바

람과 같은 자연은 여동생에게 아름다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기억되어 훗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한다.

시인은 자신이 과거에 자연에게서 체험했던 기쁨을 여동생에게서 본다. 여동생은 미래에 시인과 같이 이 장소에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오랫동안 자연에 대해 범신론적 숭배를 표해왔던 시인은 고된 줄도 모르고 다시 자연을 찾아온다. 그 숭배는 자연에 대한 보다 성스러운 사랑에서 나온 보다 깊은 열성으로 나타난다.

너는 잊지못하리  
수많은 방랑후에 수년의 부재후에  
이 가파른 숲과 우뚝 솟은 절벽들과  
이 푸른 목가적 풍경들이 나에겐  
그 자체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한층 더 사랑스러웠음을

Nor wilt thou then forget,  
That after many wanderings, many years  
Of absence, these steep woods and lofty cliffs,  
And this green pastoral landscape, were to me  
More dear, both for themselves and for thy sake!

(155 -159)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 시를 끝내고 있다. 시인이 여러 해 동안 방랑하다가 5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아 자연 그 자체들과 자연과 교감하여 기쁨을 얻는 누이동생 때문에 이 풍경들이 시인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던 사실을 누이동생은 미래에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인에게처럼 누이동생에게도 어떤 보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워즈워쓰가 풍경에 대한 회상에서 얻은 선물은 첫째 풍경이 주는 평온함에 대한 것이다. “하늘의 고요”와 더불어 소리 없는 가운데 솟아오르는

연기 등을 워즈워쓰는 와이강의 “부드러운 내지의 속삭임”으로 표현한다. 둘째로, 그가 5년 전 와이강을 방문했던 기억의 회상은 그에게 치유의 효과를 준다. 그가 “지쳐있을 때”에 “조용히 되살아나는 감각들”을 가져다 주는 치유의 효과를 준다. 특히 “도시에서의 지친 생활”과 연관되어 치유의 효과를 주고 있다. 세 번째로 주요한 선물은 그가 “사물의 생명속을 들여다보게”하는 “고요하고 축복받은 분위기”이다. 그는 자연의 물질적 형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와 또한 그 자신의 안에도 존재하는 내적 삶의 힘을 인식함을 묘사한다. 그가 와이강을 회상함으로써 얻었다고 믿은 세 가지는 그가 기억에 부여한 중요성을 설명한다. 과거의 즐거운 경험은 여전히 그에게 유효하다. 게다가, 이런 경험은 종종 열중하여 명상하면 매우 심오한 효과를 준다. 와이강의 조화된 풍경을 회상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요한 조화가 감지될 수 있는 분위기로 유도한다.

중요한 점은 우선 워즈워쓰가 자연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리고 그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역할은 무엇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자연이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자연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이 영혼은 인간에게 인생의 의미를 전해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은 철학적 근원이며, 인간을 성숙한 인생으로 안내해 준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워즈워쓰를 범신론자로 여기는데 그는 자연 자체를 신적인 숭엄한 존재로 생각한다. 이는 자연은 신이 자기의 의지를 가장 분명히 나타내는 실체라는 것이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중에서 자연주의는 자연은 신의 의지를 가장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경치에 대한 묘사는 도덕적 관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에 의해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려졌다.<sup>46)</sup>

46) Sir Kenneth Clark, *Landscape into Art* (London: Pelican Series, 1976), p. 89.

그에게 있어 우주는 그가 신이라고 동일시한 자유롭고 능동적인 생동하는 힘으로 충만해있다. 워즈워스가 원한 것은 신이 내재하는 세계이다. 그에게 있어 신과 자연은 하나다. 그에게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 ...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강력한 단일체를 고수한다. 각각의 것은 그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명이다.<sup>47)</sup>

그렇다면 숭엄한 신이 갖든 자연은 인간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틴틴 사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연은 인간에게 미학적 감각을 충족시켜주면서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즉, 자연은 막대한 부를 갖고 있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기쁨으로 축복해준다. 워즈워스의 시는 자연의 대상물을 노래한 많은 시에 기쁨이 표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놀드는 “워즈워스의 시는 위대하다. 이는 그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기쁨을 느끼게 하는 비범한 힘 때문이다.”<sup>48)</sup>라고 워즈워스에 있어서 자연의 의미를 설명한다.

워즈워스의 시작은 과거의 자연체험을 자연을 매개로 한 상상력의 창조적 정신활동을 통해 회상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매그너슨(P. Magnuson)은 “코올리지는 갖지 못했으나 워즈워스가 갖고 있었던 것은 어린시절의 경험들이 어른의 경험속으로 동화될 수 있는 창조적 기억력과 의식이였다.”<sup>49)</sup>라고 하여 어린시절의 자연에 대한 경험이 워즈워스의 시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한다.

---

47) Russel Noyes, *English Romantic Poetry and Pro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237.

48) Matthew Arnold, *Essays in Criticism*, ed. S. R. Littlewood (London: Macmillan, 1965), p. 91.

49) Paul Magnuson, *Coleridge's Nightmare Poetry* (Charlottesville: Univ Press of Virginia, 1974), p. 122.

자연은 우리의 영혼을 고귀하게 이끄는 신적인 존재다. 이러한 면에서 자연은 우리 인간을 이끄는 도덕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승화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 인간의 도덕률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도덕을 가르쳐 준다. 따라서 학문적인 진리보다 자연과의 교감을 이루면서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진리가 시인에게는 더 의미가 있고, 시인에게 진정한 교육의 장은 자연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시인의 임무이다.

모든 위대한 시인은 교사다. 나는 내가 교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지기를 바란다. 나의 시들 중 어느 하나라도 도덕적 문제, 보편적 원리, 사상적 체계, 그리고 지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sup>50)</sup>

「틴턴 사원」은 모든 사물은 그 나름의 영혼과 생명이 깃들여 있고, 자연은 자연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속이지 않는다는 영원한 진실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공존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시이다. 따라서 와이강의 자연은 도시의 문명생활에서 체념과 절망에 빠진 워즈워쓰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새롭게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조적 힘을 부여해 주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연은 질서를 회복하게 하며 사고의 닳을 발견하게 하는 도덕적, 정신적 안내자인 것이다. 또한 「틴턴 사원」에서 워즈워쓰는 자신의 모든 미래의 시편들의 토대가 되며 자연시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는 ‘자연’을 시 창작과정을 통해 구축해 간다. 그러나 그러한 구축작업은 시인의 의도만큼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 같지는 않다. 시인은 자연의 사랑과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승리에 찬 듯한 시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회의와 불안의 분위기가 시 전체

---

50) William H. Crawshaw, *The Making of English Literature*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1907), p. 280.

를 관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워즈워쓰가 파악하는 자연이라는 실체는 무한하며 모든 사물에 살아있는 영혼이 들어 있다고 하는 범신론적 사상을 코울리지를 통하여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스피노자 철학의 요지는 정신의 세계와 물질세계를 가진 물체의 양면성과 범신론적 사상이다. 그에 의하면 인식은 감각이 영혼에 표상을 생기게 함으로써 시작된다. 표상은 전형 규칙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며 영혼은 수동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다른 한편으로 표상들에 질서를 부여하며 정신의 질서에 따라 표상들을 결합하는 능동적인 작용도 한다. 실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모든 것이 실제 자체라는 말이 성립하기 때문에 워즈워쓰는 실체는 자연이며 자연은 곧 신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틴턴 사원」은 스피노자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가장 원숙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 사물의 형상이나 영혼이 그 자체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물질과 자연의 모든 영적인 대상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 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범신론에 대한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체는 신이 아니라 신의 한 부분이다. 모든 움직이는 것과 그들에게 깃들여 있는 영혼에는 외적인 세계와 형태가 존재한다. 워즈워쓰는 우주의 삼라만상에는 생명체이든, 비생명체이든,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있다는 신앙을 선언한다. 따라서 와이강은 생명이 있는 인격화된 자연이 될 수 있고 만물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합일체 안에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에이브람스는 그것을 “정신과 외부세계의 합일(the union between the mind and the external world)”<sup>51)</sup>이라고 하며, 윌리엄스(C. Williams)는 “개인적 생명

과 우주적 생명의 일체감(a sense of individual life with universal life)”<sup>52)</sup>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시인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

51) Abrams, *Natural Supernaturalism*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1971), p. 79.

52) Charles Williams, "Wordsworth" in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M. H. Abrams (London: Oxford UP, 1960), p. 111.

## IV. 결론

워즈워스는 코울리지와 함께 『서정 담시집』을 발표하여 낭만주의 시론을 정립한다. 그는 좋은 시란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라 정의하고 인간성의 본질적 고결함을 소박한 시골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했고 그들이 쓰는 일상언어를 시어로 채택한다. 또한 평범한 사건이나 상황을 시의 소재로 선택하였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속에 인간 본성의 본질적 숭고함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워즈워스는 어린 시절에 자연속에서 생활하였고, 청년 시절에는 프랑스 혁명을 경험한다. 그러는 동안 좌절과 희망 속에서 그 자신의 자연관이 형성된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보모요, 안내자인 것이다. 그는 체험의 대상이나 심미적 대상으로서 자연을 최우위에 두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 존재이다. 그는 이 세상을 신의 한 모습으로 보고, 자연을 신의 섭리가 충만하여 평화가 깃든 영적 세계로 보는 범신론적 사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사상은 어린시절 자연과의 교감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불우했던 유년시절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생명이 넘치는 자연과 친숙한 소년으로서, 들판과 숲의 방랑자로서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황홀감과 깊은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그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슬픔이나 마음의 허전함을 보상받고자 한다. 그리고 그때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지상의 온갖 신비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심안을 터득하게 된다.

어린시절의 경험에서 자연은 윤리적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 어린 시인의 양심과 의식을 일깨운다. 「내 가슴은 뛰누나」에서는 거의 신비스러운 정도로 대자연에 대한 경건심을 표현한다. 어린시절 무지개를 보았을 때 느꼈던 대자연에 대한 경건심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더욱 종교적 감정으로 승화되어, 대자연이 주는 계시까지 알게 된다. 무한히 아름다운 대자연과의 친밀함 속에서 창조주의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범신론적 사상까지 승화된다.

기계문명,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 산업화 등으로 인류의 삶은 문명의 혜택을 입어 육체노동에서 해방되었으나, 정서적인 삶은 불안과 고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문명사회에서 고독함을 너무 강하게 느꼈던 시인은 대자연과의 만남을 통하여 고독의 병을 치유받게 되고 이런 치유의 힘을 지닌 자연의 기쁨을 그의 시 「나는 구름처럼 홀로 헤매었네」에서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시인이 공허하고 고독한 기분에 싸여 쓸쓸히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아름다운 수선화가 안겨 주었던 경험의 큰 기쁨을 기억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재생한다. 그리하여 시인은 고독의 아픔을 고독의 축복으로 바꾸어 위안을 얻게 된다.

「틴틴 사원」에서 그는 체험의 대상이나 심미적 대상으로서 자연을 최우위에 두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 존재다. 그는 대자연의 모든 양상을 세밀하고 예민하게 관찰하여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대자연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교감하여 조화된 명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는 와이강을 묘사할 때 넓은 철학적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고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영원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상을 깊이 생각한다. 시인의 고독과 적막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연상한다. 시인은 이러한 정감을 혈관 속에 느끼고 심장에서 고동치는 달콤한 감각, 고요한 회상을 설명한다.

위즈워쓰가 자연 속에서 얻은 선물은 아름다운 자연과 직면했을 때에 체험하는 일종의 신비적 체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현실의 시름을 덜어주는 신비적 힘이다. 그는 이러한 신비적 체험 가운데서 자연을 다만 물질만의 맹목으로 보지 않고 현실의 번민에 어떠한 치료의 힘 혹은 정화의 빛을 비춰주는 한층 숭고한 존재가 있는 것으로 느낀다. 이는 이 세상을 신의 한 모습

으로 보고, 자연을 신의 섭리가 충만하여 평화가 깃든 영적 세계로 보는 범신론적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찾아 인간에게 전하려 하였다. 인간은 자연을 실제적 삶 속에서 감각적으로 인식하여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맛보고 기쁨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이상적 삶 속에서 영적인 인식에 이르게 되어 어떤 생각을 도출해 내고 고독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 영적인 풍요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 과정은 상상력의 채색을 통하여 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만물에 내재해 있는 영적 존재를 인식하는 범신론 사상이다.

워즈워쓰 시에 나타난 자연을 정리해 보면, 자연은 무한한 심미적 기쁨을 시인에게 안겨 주고, 도덕적 교훈을 주며, 자연과 인간의 합일상태를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이 동일화될 때 비로소 자연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워즈워쓰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본다. 자연과 인간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자연은 심적 고뇌의 도피처이며, 정신적 위안을 받는 곳이며, 불합리한 현실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토피아인 것이다.

워즈워쓰의 시 자체는 자연 자체에 바쳐진 것이며 인간에게 베푸는 교훈을 담고 있다. 온갖 사물 속에서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을 기쁨으로 느끼게 되며, 가난한 사람, 비참한 환경에 놓인 사람, 불구자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을 시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한다. 그의 시는 “고요속의 회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순수성 묘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자연을 살아있는 우주로 인식하고 소위 유년기 이론의 철학을 통해 순화시키고 일상생활이 자연의 경건함 속에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시적 상상력은 인간의 순수성에 근거하는 창조적 성장을 말한다. 실제로 워즈워쓰는 자연 속에서 나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자연 속에서 시심을 키워 자연을 노래한 진정한 자연시인이자, 인간에게 자연의 도덕적 교훈을 일깨워 준 진정한 인간시인이었던 것이다.

## Bibliography

- Abrams, M. H.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5th Ed. vol. 2. New York: Norton, 1986.
- \_\_\_\_\_. *Natural Supernaturalism*.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1971.
- Arnold, Matthew. *Essays in Criticism*. London: Macmillan and Co. Ltd., 1958.
- Babbitt, Irving. *Rousseau and Romanticism*. New York: World Publishing Company, 1947.
- Bate, W. J. *Criticism: The Major Text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0.
- Benziger, James. *Lyrical Ballads: A Casebook*. Eds. Alun Jones and William Tydeman.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2.
- Bernbaum, Ernest. *Guide Through the Romantic Movement*. 2nd Ed. New York: Ronald, 1949.
- Bloom, Harold. "The Myth of Memory and Natural Man," *Wordsworth: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M. H. Abram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2.
- \_\_\_\_\_.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70.
- \_\_\_\_\_. Ed. *William Wordsworth: Modern Critical Views*. New York: Chelsea House, 1985.
- Crawshaw, William H. *The Making of English Literature*. Boston: Heath and Company, 1907.

- Clark, Kenneth Sir. *Landscape into Art*. London: Pelican Series, 1976.
- Connolly, F. X. *Poetry: Its Power and Wisdom*. New York: Scribner, 1960.
- Darbishire, Helen. *The Poet Wordsworth*. London: Oxford Univ. Press, 1958.
- Durrant, Geoffrey. *William Wordswort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9.
- \_\_\_\_\_.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A Study of Wordsworth's Poetic Univers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0.
- Ferry, David. "The Love of Man," *The Limits of Morality*. Connecticut: Wesleyan Univ. Press, 1959.
- Frye, Northrop. *A Study of English Romanticism*. New York: Random House, 1968.
- Gardiner, Alan. *The Poetry of William Wordsworth*. London: Penguin Books Ltd., 1987.
- Hutchinson, Thomas. "Preface to the Edition of 1815," *The Poems of Wordsworth*. Oxford: Oxford Univ. Press, 1976.
- Lawson, S. J. L. *Notes on Wordsworth's Poetry*. Toronto: Coles, 1968.
- Magnuson, Paul. *Coleridge's Nightmare Poetry*. Charlottesville: Univ. Press of Virginia, 1974.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Later Years, 1803-1850*. Oxford: Oxford Univ. Press, 1968.
- Noyes, Russel. *English Romantic Poetry and Pros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5.
- Owen, W. J. B. *Wordsworth and Coleridge Lyrical Ballads*. Oxford: Oxford Univ. Press, 1969.

- Perkins, David. *English Romantic Writer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7.
- Pope, Alexander. "An Essay on Criticism". In *Great English Writer*. Ed. Oscar James Compbell, et. al. New York: F. S. Crofts and Co., 1946.
- Pottle, Frederick A. "The Eye and the Objects." In *The Poetry of Wordsworth: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Ed. Harold Bloom. New York: W. W. Norton & Co, 1970.
- Poulet, Georges. *Studies in Human Time*. Trans. Elliot Colema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 Prickett, Stephen. *Coleridge and Wordsworth: The Poetry of Growt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0.
- Rader, Melvin. *Wordsworth: A Philosophical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1968.
- Schweikert, H. C. et. al. *Adventures on English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1932.
- Watson, J. R. *Wordsworth*. Berkshire, England: Profile Books Ltd., 1984.
- Williams, C.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London: Oxford Univ. Press, 1960.
- Wimsatt, W. K. and Brooks, C. *Literary Criticism*. New York: Alfred Knopf, 1967.
- Woodring, Carl. *Wordsworth*. Boston: Houghton-Mifflin, 1965.
- 강선구. 『영시평론』.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원일. 『William Wordsworth의 자연관 연구 -“Tintern Abbey”를 중심으로

-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원배. 『William Wordsworth의 종교적 비전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정완. 『Lyrical Ballads ‘서문’에 나타난 Wordsworth의 시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종갑. 『영어영문학』 제 39권 1호, 서울, 1993.
- 김희태. 『Wordsworth의 상상력과 자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노창식. 『W. WORDSWORTH 시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93.
- 문희제. 『Wordsworth의 시 세계에 나타난 자연관』.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숙재. 『Wordsworth의 기억과 상상력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옥현. 『William Wordsworth의 범신론적 자연관 -Tintern Abbey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재호, 이명섭. 『영미 시 총서해설 II』. 탐구당, 1980.
- 장세기. 『윌리엄 워즈워쓰』. 서울: 형설출판사, 1974.
- 조희정. 『Wordsworth의 Lyrical Ballads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허천택. 『언덕의 환영, 고적한 영혼들』. 서울: 한신문화사, 1993.

<Abstract>

## Wordsworth's Views on Nature in *Lyrical Ballads*

Mae-Soon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Yoon-Deok Hur)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Romanticism that appears as an opposition to rationality and order of Rationalism and Neoclassicism was a turning point in both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18th century. With the publication of *Lyrical Ballads* in 1798, we are able to say that it was a full-scale opening of Romanticism that was a large issue in British literature. Especially Wordsworth's views which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Poet is a man speaking to men", and "Poetic language is a real language of men" in the Preface of his work *Lyrical Ballads* were very revolutionary comments about aspects of the trend of literature at that tim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make clear the meaning of nature based on Romantic ideology in *Lyrical Ballads*. Wordsworth grew up being associated and sympathized with nature from times he was born. It could be considered to be his friend, guardian, preceptor and teacher. That is, Wordsworth was a pantheist believing that God exists in nature. He built up his own view on Nature through experience and his spirit of poetry grew up as well. He tried to tell the message which is perceived from the Nature. His viewpoint in *Lyrical Ballads* is expressed very much in case of his early poems, especially i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7.

"Tintern Abbey" implicitly and synthetically.

The necessity of this thesis is to know the reasons why Wordsworth's poetry is great, because it has remarkable ability to make us feel joy by providing us with pleasure from nature and in order to recognize what the ultimate moral truth that he will pursue through nature is. Therefore, from his poetry we can realize that Nature gives us a blessing mood and comfort and then exchanges our mind with a calm and serene state. When we feel loneliness and sadness in the noise of a city, we can remember and recreate through imaginations of a poet when we took again back nature. It means that nature can enlighten us and we can recognize universal truth that nature gives beauty and pleasure to men and cures our mind, and the moral truth that we become more loving, relative to other men by a loving natural beauty.

